

오영환의원,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11년 만에 국회 문턱 넘어!

소방관출신 오영환의원 대표발의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국회 본회의 통과

2010년부터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체계 구축을 위한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번번히 임기 만료 폐기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소방의 화재조사 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소방관 출신 오영환의원

국내 연구기관 등을 감정기관으로 지정·운영하도록 하는 등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 체계 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 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 '화재 예방 3법'을 입법발의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화재예방 3법 법률안 공청회'를 개최해 과학적 화재조사를 통한 명확한 원인 규명과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

오영환 의원은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 "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 화재 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남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안'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최광용/기자

이학희 하동군의원, 다문화인 선정 올해의 인물상

하동군의회, 2021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시상식서 올해의 인물상 수상 영예

하동군의회는 이학희 의원이 지난 16일 부산광역시 예술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 시상식에서 '다문화인이 선정된 올해의 인물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은 제 14주년 세계인의 날을 맞아 국내 200만 다문화인의 빠른 정착과 국내 예술인, 다문화가정 그리고 후원자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올해 10회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대한민국 다문화예술대상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사)한국다문화예술원, (사)한국기자연합회, (사)우리다문화연맹, (사)부산다문화예술협회 주관으로 대중

가요, 영화·드라마·연극, 문학 등 각 예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예술인에게 표창장도 함께 수여했다.

이학희 의원은 제8대 하동군의 회 의원으로서, 의회와 행정 간의 가교역할을 원활히 수행하는 한편, 공무원 재직시절 주민복지실장을 지내면서 다문화가정의 어려움을 잘 알고 이들의 조기 정착과 복지 증진 등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 받았다.

이학희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면서도 다문화 가족이 사회적 편견 없이 서로 소통하며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할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홍성국 대표발의 '계좌대여 알선·중개 처벌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대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불법 대여계좌로 유인하는 중개·알선 행위의 금지원칙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것이 주요 골자다.

선물·옵션과 같은 고위험 파생상품은 증거금, 기본예탁금, 사전교육 등 진입장벽을 두어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회피하려는 투자자에게 계좌를 대여해주고, 단돈 수십만 원의 증거금만으로 수익원 대 파생상품 거래에 참여시키는 불법 계좌대여 행위가 발생해 왔다.

특히 최근에는 동영상 사이트, 실시간 스트리밍 방송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중개·알선

행위가 이루어짐에 따라 이전보다 광범위하게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자본시장법상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금융당국의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번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해당 행위의 불법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는 한편, 현재 집계되지 않고 있는 관련 범죄 및 피해 발생과 처벌 현황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성국 의원은 "금융당국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불법 계좌대여 업체가 사설거래소 역할을 하거나, 실거래를 하는 것처럼 투자자를 속여 투자금을 챙기는 등 범죄 수법이 나날이 진화하고 있다"며 "개인 투자자들의 한탕주의를 부추겨 금지된 방식으로 고위험투자를 유도하는 행위를 확실히 근절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이광일 전남도의원, "체계적인 낚시관리로 낚시인과 어업인의 상생 도모하자"

전라남도의회는 21일 제352회 본회의에서 이광일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1)이 대표 발의한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 조성을 위한 낚시 관리 및 육성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가 낚시 관리 및 육성법을 개정하고 낚시 면허제를 도입하여 수산자원 보호와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해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광일 의원이 제시한 해양수산개발원과 수산자원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낚시인의 어획량은 연근해 어업생산량 93만 톤의 약 12.5%에 달한다. 또한 낚시인들은 어업인 어획량의 60%에 달하는 양의 쭈꾸미를 잡고 있으며, 감성돔은 어업인보다 2배 더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다량으로 포획한 어류를 위판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약 10만 톤의 밀렵과 5만 톤의 낚시 쓰레기 처리에 필요한 종량제 봉투 비용만 8억 6000만원에

서 9억 1200만원에 이르고, 낚시어선 안전사고는 2006년에서 2016년까지 16배 급증했다.

이광일 의원은 "어업인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각종 규제를 받는데 낚시인은 규제에서 자유로운 편이고, 낚시 쓰레기와 안전사고 증가로 환경오염과 인명피해도 심각하다"며 "낚시 면허 도입으로 낚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여 낚시인과 어업인이 상생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편 이광일 의원은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이자 전라남도 수산자원보전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전남 교육 발전뿐 아니라 '수산자원관리법 개정 촉구 건의안', '폐각 재활용 확대와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관계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내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인 권익 신장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있다.

김영만/기자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 제47차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총회 참석

국가 주도의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 및 관광진흥법 개정 건의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부회장)가 21일 전북 무주태권도원에서 열린 제47차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에 참석했다.

전국 17개 시·도의 시·도지사가 모두 참석한 이번 총회에서는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부수 법안 대응 ▲자치경찰제 전국 실시에 따른 개선과제 발굴 ▲지역연계형 대학협력 및 기능이양 방안 등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함께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

또한,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 상황과 대응방안을 보고받은 시·도지사들은 실질적 재정분권을 위해서는 지방 자주재원 확충과 1단계 재정분권 추진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합리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 했다. 이에 시도지사들은 지역경제 활성화, 균형발전 및 재정분권 추진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에 2단계 재정분권을 고조시키며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세계 주요 선진국들은 국가 주도로 광역대도시권 육성을 통해 국가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같은 권역별 초광역협력 추진을 지역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정부가 앞장서서 적극 추진하고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재정지원과 권한이양이 필요하며 협의체 차원에서 정부에 촉구해 줄 것을 건의

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민간투자유치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도시개발법처럼 관광(단지) 조성 계획부터 원형지도 처분 가능하도록 관광진흥법을 개정할 것을 건의했다.

현재는 관광(단지) 조성 시 조성된 토지만 처분할 수밖에 없어 재정이 열악한 지방정부 추진 사업은 장기간 지연되거나 방치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며 도내에서는 지정 후 완료되지 않는 관광(단지)가 24곳이 있다. 한편 김 지사는 올해 9월 10일부터 한 달간 함양에서 열리는 2021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와 관련해, 많은 관람객이 방문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서 엑스포 홍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함양산삼향노화엑스포'는 산삼을 주제로 한 최초의 엑스포로서 우리나라 산삼의 우수성을 세계에 널리 알리고, 산삼이 항노화산업의 새로운 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김 지사가 조직위원장을 맡고 있다.

최광용/기자



임오경 의원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들도 수혜 대상에 포함된다!

5월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갑)이 대표발의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안'과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 두 건이 대안에 반영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임오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총 72개의 법안 중 24개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성과를 낳았다. 금일 통과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석박사 학위과정 등의 대학원생을 포함하여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대학원생의 등록금 부담을 해소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안'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생계위협을 겪고 있는 관련 종사자들을 위한 대응책 차원에서 온라인 발매를 허용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과몰입을 방지하기 위한 실명 확인, 주의문구 게시, 교육 시행 등의 다

양한 과몰입 예방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불법사설 경륜·경정 사업을 근절하기 위해 처벌 수준을 강화하도록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임오경 의원은 "코로나19로 가계가 어려운 시기에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통해 우리 청년들을 더욱 지원하는 것은 물론, 건전한 경주 사업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마련으로 국민 편익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전순희/기자



http://www.dailyculture.kr/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우편번호 : 08333 서울 구로구 개봉로 12길 9-19 105동 201호
 우편번호:14222 광명시 시청로7 흥신에이스텔 701호

발행·편집인: 최수진 / 회장 문기주/부회장 박유석 / 사장 임석경 / 편집국장:최재은
 청소년 보호 책임자 발행인:최수진

대표전화:1899-9659 e-mail:ekwk44@naver.com sujin004344@daum.net

2009년 4월 12일 창간 정 치 부:내선 (112) 문 화 부:내선 (116)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서울.가50146 사 회 부:내선 (113) 부 동 산 부:내선 (117)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경 제 부:내선 (114) 오 피 니 언 부:내선 (118)
 대표전화 : 1899-9659 스포츠부:내선 (115) 지 방 부:내선 (119)
 편 집 국 : 02)2612-2959
 팩 스 : 02)2060-4147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96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남원시의회

NAMWON CITY COUNCIL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만들겠습니다



광한루원의 봄



바래봉 철쭉

이환주 남원시장 '제4회 도전한국인 시상식'서 '모범 자치단체장상' 수상

이환주 남원시장의 행정리더십이 다시 한번 빛을 발했다.

남원시는 지난 20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제4회 도전한국인 시상식'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이 행정리더십 부문 '모범 자치단체장상'을 수상했다고 21일 밝혔다.

(사)도전한국인본부가 주관한 시상식은 특유의 도전정신을 바탕으로 지방자치 행정에 탁월하게 기여한 자치단체장을 선정해 그 위상과 자긍심을 높이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이번 시상식에서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에서 이환주 남원시장을 비롯한 12명의 기초단체장을 엄선, 시상했다.

주요 평가심사분야는 단체장의 리더십, 전문성, 추진력, 코로나19 방역 대책 등 이며 분야별 우수 단



체장을 추천 및 발굴 하고 시상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확정했다.

특히 이환주 남원시장은 국가 예산 최대치 확보 및 중앙부처 공모사업 적극 유치, 전통과 미래가 공

존하는 문화관광도시 완성 본격 추진, 코로나 19 여파 최소화 및 경기침체 해소를 위한 일자리 확대 등 튼튼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해온 점에서 공로를 인정받았

이남출기자

다. 또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환경 구축과 미래지향 교육·건강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 농가소득 향상, 풍요로운 농촌 만들기에 주력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친절한 소통행정 안착과 청년정책 실현으로 청년들의 목소리를 적극 시정에 반영한 점과 지난해 역대급 수해가 발생했을 때 시민과 한마음 한뜻으로 수해극복에 이바지한 점 등 각 분야에서 행정리더십을 발휘한 점 등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이환주 남원시장은 "뜻깊은 상을 수여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행복한 시민 더 큰 남원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상남도, 김경수 지사와 도민이 함께하는 유쾌한 이야기 만나보세요!

김 지사와 도민의 이야기 '경남수다' 부울경 메가시티편 유튜브에 공개

경상남도도 김경수 지사와 도민의 이야기 '경남수다' 부울경 메가시티편을 경남포털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다.

'경남수다'는 다양한 도민들이 도 지사와 함께 경남에서 살아가는 진솔한 이야기와 도민이 바라는 경남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유튜브용 콘텐츠다.

부울경 메가시티를 주제로 진행된 이번 '경남수다'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청년과 문화예술인, 스타트업 대표 3그룹에 각각 도민 1~2명이 참석했다.

청년 그룹은 경남대학교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기계공학과에 재학 중인 김민우씨와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를 졸업한 서수진씨와 함께했다.

경남에 살지만 전국 어디에 내놔도 뒤처지지 않는 실력을 가졌다는 자신감과 패기가 넘치는 두 청년은 수도권과 비교한 경남 청년의 현주소, 일자리에 대한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수도권과 경남 청년의 출발선부터 불공평하다는 질문에 상반된 의견을 가진 두 청년의 이야기를 들은 김 지사는 불공평하다고 생각하지만 많이 바뀌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수도권의 청년도 힘들다면서 "지역의 특성에 따라 다른 종류의 불공평함이 존재한다" 밝혔다.

경남의 청년이 일자리 때문에 서울로 떠난다는 질문에도 인문계열인 서수진씨와 이공계열인 김민우씨의 의견이 갈렸다.

김 지사는 경남에는 제조업을 제외하면 일자리를 구하기 힘들다면서 "부울경이 인력을 양성하고 다양한 조건을 갖춘다면 경남에 오기를 망설이는 기업들도 검토해볼 만하다고 한다. 그렇게 해서 일자리를 늘리면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두 청년은 부울경 메가시티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편리한 교통편과 지금보다 더 좋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다는데 희망이 있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문화예술 분야에 참석한 도민은 경남도립극단 청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상희씨와 꿈치밴드에서 베이시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환씨이다.

김 지사는 두 사람과 어릴 적 꿈과 문화예술인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 나눴다. 두 사람과의 시간에서는 예술에 대한 열정과 경남의 문화예술인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다는 후문이다.

세 사람 모두 공통적으로 지역 문화예술인의 뛰어난 역량에 비해 인 프라에 대한 아쉬움에 공감하며 부울경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도 내비쳤다.

최광용기자

구리시 안승남 시장, 2021 구리시민 행복대학 개강식 개최

행복 탐색과 행복 나눔 소통의 장 운영... '행복학습 특별시' 조성에 박차



구리시는 지난 21일 오후 7시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2021 구리시민 행복대학 개강식을 가졌다.

구리시민 행복대학은 구리시민에게 스스로 행복의 길을 찾아가는 수준 높은 평생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프로그램이다. 이날 개강식에는 구리시민 53명이 참석하여 개인이 느끼는 행복이 무엇인지, 삶의 만족도, 행복한 삶을 위한 10가지 방법 및 향후 일정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처음 시작되는 '구리시민 행복대학'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라며, "코로나19로 심신이 지친 시민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 지식과 행복을 함께 나누고, 8회차 교육에 끝까지 참여하여 수료식 날 행복한 미소로 다시 뵙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후 특강 시간에는 박진도 국민총행복포럼 이사장이 '부탄 행복의

비밀'이라는 주제로 부탄이 왜 행복한지 그리고 그 행복의 비밀을 대한민국과 지자체에 적용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다.

오는 12월까지 총 8회에 걸쳐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진행되는 이번 교육에는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오연호 오마이뉴스 대표기자) ▲우리의 불행은 당연하지 않습니다!(김누리 중앙대 교수) ▲북유럽 국가의 시민(하수정 북유럽연구소장) 등이 행복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강의를 진행하게 된다.

한편, 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시민에게 배우는 즐거움과 더불어 지역의 변화를 이끌어갈 지역 행복전도사로서의 성장을 유도하고, 누구나 누릴 수 있는 평생학습 특별시를 만들어가는 도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최만식기자

과천시 김종천 시장, 노형욱 국토부 장관 면담...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김종천 과천시시장, 청사 유휴지 활용방안 숙고해 달라

과천시 김종천 시장은 20일 오후, 이소영 국회 의원실에서 이 의원과 함께 노형욱 국토부 장관을 만나 면담했다.

이번 면담은 그동안 김종천 시장과 이소영 의원이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 등을 만나고, 청사 유휴지에 김성환,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을 초대하는 등, 청사 일대 주택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온 결과 이루어졌다.

김 시장은 노형욱 장관이 후보자 신분이었을 당시, 청사 일대 주택공급과 관련한 시민들의 심정 등 현안을 전달한 바 있고, 이번에는 면담을 통해 보다 자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김 시장은 "과천시민들은 청사 일대 유휴지를 심장과도 같이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시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달라"라며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해 청사 일대에 공급하겠다는 것은 국가의 미래와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옳지 않은 방향이다. 청사 유휴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지, 그 활용 방안에 대해 숙고해 달라"라고 의견을 전했다.

이소영 의원은 "청사 일대 지역은 과천의 정체성인 동시에 시민들이 가장 사랑하는 공간이다. 청사 일대는 과천시의 미래를 위해 가장 바람직한 방향으로 과천시민이 그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야기를 들은 노형욱 장관은 "오늘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회 당시 박영순, 송석준, 허영 의원으로 부터도 청사 일대 주택 공급과 관련된 이야기를 들어왔다. 과천시와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내용, 또 전

체 주택공급 계획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청사부지 일대는 기반시설 여건상 정부의 목표인 빠른 주택공급이 어려우며 이를 그대로 특수한 목적을 지닌 공간임에도 부동산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을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사 일대는 기존 4호선 및 GTX-C노선, 과천-위례선 등 3개 철도노선의 환승역이 위치하게 될 교통의 요충지인 만큼, 국가와 도시 발전을 위한 종합병원 중심의 의료바이오클러스터 및 업무, 쇼핑, 공원 등의 기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과천시민 및 국민의 편의와 정부의 정책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고 말하고 있다.

김종천 과천시장은 이소영 의원과 함께 4월 28일에는 국토위 소속 박영순, 장경태, 강중현, 홍기원 의원을, 4월 30일에는 진선미 국토위원장, 5월 17일에는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을 만나 과천시 청사일대 주택공급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심정과 과천시의 대안을 설명하는 등, 청사부지 주택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 시장은 또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율기자



안산시 윤화섭 시장, 세계인의 날 기념 상호문화 이해 교육

윤화섭 안산시장은 '제14회 세계인의 날(5월20일)'을 기념해 아이너 엔센(Einar H. Jensen) 주한 덴마크 대사과 우마르 하디(Umar Hadi)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를 잇따라 초청해 상호문화 이해 특별강연을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 17일과 20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에서 글로벌 파트너로서 양국의 문화와 정책을 소개하기 위해 각각 진행된 강연은, 지난 주한 스리랑카 대사와 캄보디아 대사 초청 특강에 이어 마련된 것으로, 윤화섭 시장과 외국인 관련 기관 종사자, 시민단체, 안산시 공무원 등 모두 13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세계인의 날이었던 20일에는 시민과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영화 '미나리' 관람을 통해 미국으로

이민 간 한국인의 모습을 보여 주리사회 주변 외국인 주민을 역지사지로 이해해보는 색다른 교육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모든 교육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 인원을 80명으로 제한하고, 좌석 간 거리를 2m로 유지하는 한편, 발열체크 및 명단 작성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진행됐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강연 초청에 응해주신 아이너 엔센 주한 덴마크 대사와 우마르 하디 주한 인도네시아 대사님께 감사드리며,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를 뛰어넘어, 글로벌 파트너로서의 비전을 공유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정부기자

양주시,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 양주 숲길에서 '스마트 숲길체험' 운영

한국등산 트레킹지원센터에서는 지역 숲길의 활성화를 통한 공익적 가치 향상과 국민건강 증진도모를 위한 '스마트 숲길체험' 프로그램을 5월 22일 양주 숲길에서 시범운영 이벤트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나선다고 밝혔다.

'스마트 숲길체험'은 해당 지역의 특산품과 명소 등을 표시한 GPS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숲길을 체험하는 비대면·디지털 프로그램으로, 단조롭게 숲길 걷기가 아닌, 모바일 앱(App)을 이용해 특정구간에서 퀴즈풀기 및 미션 수행 등으로 숲길과 어우러진 지역의 문화와 명소는 물론, 특산품 정보까지도 재밌고 다채롭게 체험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로 양주숲길에서 스마트 숲길체험 시범운영 이벤트를 5월 22일과 23일, 5월 29일과 30일 2주간 경기도 양주 '불국산 둘레길' 내 등산코스(양주관아지~산림욕장~삼거리~상봉)와 둘레길코스(양주시청~삼거리~유아숲체험장~양주관아지)에서 각각 진행한다.

시범운영 기간 내 참여방법은 양주별산대 놀이마당 앞 부스에서 모바일 앱을 다운받아, 코스 걷기 중 퀴즈 풀기 및 야생화 사진촬영 후 전자인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지정된 장소를 전부 탐방하여 완주하였을 경우 기념품 등을 제공한다.

프로그램은 코로나19로 인한 거



리두기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및 숲길관광실로 문의할 수 있다.

한편,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는 산림청 산하 공공기관으로 건전한 등산·트레킹 문화의 확산과 발전을 위한 교육·홍보 사업 및 전국 숲길 관리, 국립산악박물관, 국립등산학교를 운영해 오고 있다.

정동희/기자

성남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 가동

성남시는 폭염으로 인한 시민 건강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5월 20일~9월 30일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를 가동한다.

이 시스템은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에 내원한 온열질환자 현황을 매일 모니터링하고, 분석한 발병 요인, 주요 특성 등의 정보를 질병관리청 누리집을 통해 제공해 폭염 예방 활동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를 위해 시는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분당차병원, 분당제생병원, 국군수도병원, 성남의료원, 순천의료재단 정병원, 성남중앙병원 등 7곳 응급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유지한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 때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 저하가 나타나는 응급질환이다.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등이 대표적이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사전 예방과 신속한 조치가 중요하다.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물을 자주 마시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기상 정보를 매일 확인해 무더운 날은 야외작업장, 차 안에 머무르지 않고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해야 한다.

성남시 보건소 관계자는 "올여름은 때 이른 무더위가 예상되는 데다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마스크까지 착용해 온열질환에 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성남지역에선 14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성욱/기자

온열질환 응급조치

고열, 축적량이 많아 넘거나 건조해지면 피부, 빠른 맥박과 호흡, 두통, 피로감과 근육경련

증상 없음 → 119 구급대 요청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시원하게 함

수분 섭취

증상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 119 구급대 요청

병원으로 후송

폭염대비 건강수칙

작은 실천으로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물 자주 마시기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규칙적으로 자주 물 마시기
- 신장질환자는 의사와 상담 후 섭취

2 시원하게 지내기

- 사워 자주 하기
- 외출 시 햇볕 차단하기(양산, 모자)
- 얇고 밝은 색깔의 가벼운 옷 입기

3 더운 시간대에는 휴식하기

- 가장 더운 시간대(낮 12시~오후 5시)에는 휴식하기
- 간지가 날씨가 더워질 경우, 건강상태를 살펴해 활동 강도 조절하기

이런 분들 조심하세요!

- 고령자 및 독거노인
- 아외근로자
- 만성질환자
- 어린이

곽상욱 오산시장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 위촉

교육도시 오산을 이끌어온 곽상욱 오산시장이 현직 민선 지자체 단체장으로서 유일하게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곽 시장은 이에 따라 2022 개정 교육과정 추진 자문을 위한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로 20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차 협의회에 참석하였다.

김남주/기자

재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국가교육과정 정책자문위원회 제1차 협의회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주재로 개최돼 교육과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되었다. 곽 시장은 오산시에서 먼저 시행 중인 오산 이음형 고교학점제, 자유학년제 프로그램 미리내 일학교, 초등학생 대상 1인 1악기 통기타 수업 등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정규 교과과정에 도입한 선도적 교육정책을 소개하였다.

곽 시장은 또 교육과정이 학교 안에 국한되지 않고 학교와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삶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김남주/기자

구리시,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 새 단장... '6월 엘마트' 개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개경쟁입찰 진행, 4회 유찰 끝에 엘마트 낙찰

구리시는 지난 1월 엘마트(주)와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에 대한 계약을 새롭게 체결하고, 6월 초부터 층별 순차적 개장을 위해 리모델링 공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새롭게 개장하는 엘마트는 ▲1층에 식자재 마트 ▲2층에는 하이마트, 다이소, 화장품 등 생활용품 판매시설 ▲3층에는 음식점, 아동들의 장난감, 스크린 골프장 등 여가 활동 시설을 6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개장할 예정이다.

구리유통종합시장 대규모 점포는

1999년부터 롯데쇼핑(주)과 장기 임대계약을 체결해 22년간 운영해 왔으며 2021년 1월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대규모 점포 계약자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진행하고 대규모 점포 연간 대부료는 47억 원으로 산정하여 공고했다.

1차에서 4차 공고까지 기존 계약자인 롯데쇼핑(주) 등 입찰 참여자가 없어 유찰됐고, 5차 입찰시 엘마트(주)가 단독 입찰하여 연간 대부료 33억 원으로 낙찰받았다.

엘마트(주) 관계자에 따르면 "구리 시민의 일자리 확보를 위해 기존 롯데쇼핑(주)에서 근무하던 정규직 직원 중 구리시에 거주하는 직원이 계속

근무를 희망할 경우 전원 고용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엘마트(주)와 구리전통시장 상인회와의 상생 협약을 체결하여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승남 구리시장은 "기존 대형마트를 이용하던 많은 시민이 대규모 점포 계약자 변경에 따른 공백 기간으로 마트 이용이 불편해 진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엘마트(주) 재개장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고 앞으로 엘마트(주)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만식/기자

남원시 농·축산물로 가장 맛있는 요리 만들기

2021 남원시 유튜브 영상 공모전

접수기간 : 2021. 8. 1(일) ~ 8. 9(월)

이거 보면 먹고 싶을걸~

공모내용: 남원 농·축산물을 재료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맛있게 먹는 영상

결과발표: 2021. 8. 31. 시 홈페이지 공지 (예정)

작품심사: 심사위원 10명 선정 후 국민심사 (유튜브 좋아요 득표수 평가) 최종선정 : 심사위원 점수 50% + 국민심사 점수 50%

출품자격: 아래 3가지 내용을 모두 포함해야 함. ① 영상 자막 또는 화면에 남원 농산물을 구입처 표기 ② 요리 방법 소개 ③ 맛있게 먹는 먹방 ※ 출품작 규격 이외 영상 촬영 장소, 내용 구성, 화질 구성 등은 자유형식으로 하되 영상 길이는 최대 10분을 넘지 않도록 함

구분	작품수	시상금	비고
대상	1	3,000천원	상금
최우수상	2	각 1,500천원	
우수상	2	각 1,000천원	
입선	5	각 300천원	

제출방법: 참가신청서 1부, 약속서 1부, 출품작 1편 제출(hijins@korea.kr)

문의처: 남원시청 홍보전산과 홍보계 ☎063-620-6044 ※ 기타 세부사항 및 신청서류는 남원시청 홈페이지 참고

유아맘 : 대단하심...
벚꽃엔딩 : 맛집 오픈해서야...
찌니 : 남원의 맛~ 기대 됨!
공꾸는남란 : 남원으로 가즈아!

경상북도이철우도지사,국민의힘김기현 원내대표에지역현안강력건의

20일, 구미 방문한 국민의 힘 원내지도부 만나, 지역 현안설명 건의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지역현안 해결과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연일 광복 행보를 이어가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철우 지사는 20일, '반도체 및 미래첨단소재 기업인 간담회' 등을 위해 구미를 방문한 국민의 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 원내 지도부와 일정을 같이하며, 경북의 각종 현안에 대해 설명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 지사가 건의한 현안 과제들은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용후핵연료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영덕 천지원전 자율유치금 회수 철회 ▷영일만 횡단대교 고속도로 건설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 구축 등으로 특히, 국회 차원에서 지원이 시급한 사안들이 중심을 이뤘다.

이 지사는 특히,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은 지역민들의 여망이 담겨있다고 강조하고 '제6차 공항중장기개발계획'에 충분한 공항규모의 명시와 함께, SOC 관련 국가기본계획에 필수 연계 도로·철도 노선이 담겨져야 한다고 건의하면서, 아울러, 신공항의 안정적 건설과 공항도시 건설, 산



업 클러스터 조성 등을 위해 특별법 제정과 예타면제 등이 꼭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사용후 핵연료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도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건의했다.

이 지사는 "사용후핵연료는 발전소 내 임시 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어 발전소가 운영되지 않아도 지역 주민들은 방사선 누출 등의 위험에 상시 노출되고 있으며, 이러한 잠재적

위험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도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연간 세수가 1,399억 원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지난 4월 정부가 천지원전 예정 구역 지정(2012.9.14.)을 철회하면서 후속 조치로 예정된 원전 자율유치금 380억 원 회수 철회도 강력하게 건의했다. 이 지사는 "지역민들이 위험을 감수하면서 원전을 수용했고 지난 10년간 영덕 지역에 유무형적인 개발 제한과 재산권 침해 등

이 있었음을 감안한다면 피해보상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은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동해고속도로의 유일한 단절구간인 포항 남구 동해면과 북구 흥해읍(18km)을 연결하는 사업으로, 경북의 발전은 물론, 부산울산, 강원을 잇는 환동해 관광경제의 핵심 인프라인 만큼, 당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기업인 간담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최근 삼성, LG 등 대기업 이전과 전후방산업 쇠퇴 여파 등으로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설명하면서, 국가 IT의 산업의 모태인 구미에 '반도체 융합부품 혁신제조 플랫폼'을 구축해 지역 경제는 물론, 국가 경제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울산시장을 해 봤기 때문에 누구보다 지역 현상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고 밝히며,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건의하신 지역 현안들을 당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세기기자



26일, 국립대구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개기월식 감상하세요

국립대구과학관이 오는 5월 26일 개기월식을 생중계한다. 특히 달의 고도가 낮아 대부분 지역에서 개기월식을 관찰하기 어려운 만큼 월출 후 전 과정을 과학관과 화천조경철천전문대에서 촬영하여 이원생중계를 할 예정이다.

달이 지구 그림자에 진입하는 월식 현상은 5월 26일, 오후 6시 45분경부터 오후 9시 52분경까지 일어난다. 이 중 달이 지구 그림자에 완전히 진입하는 개기월식 현상은 오후 8시 11분경부터 26분경까지 약 15분간 일어난다.

이번 개기월식은 많은 사람들이 관찰하기 좋은 초저녁에 일어나지만 달의 고도가 매우 낮아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는 장소가 매우 제한적인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월출(오후 7시 25분경, 대구 기준) 이후부터 관찰할 수 있으며, 남동쪽 시야가 지평선(수평선)까지 확보된 곳에서만 맨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5월 26일 월식은 2018년 7월 27

일 새벽에 일어난 개기월식 이후 약 3년 만에 일어나는 개기월식이며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다음 개기월식은 2022년 11월에 발생할 예정이다.

국립대구과학관에서는 이번 개기월식을 많은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월출 이후 전 과정을 생중계할 예정이다. 특히 낮은 고도에서 짧은 시간 일어나는 개기월식 모습의 생중계를 위해 국립대구과학관뿐 아니라 화천조경철천전문대에서도 촬영하여 이원 생중계를 준비 중이다.

이번 개기월식은 5월 26일 국립대구과학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되며, 시간은 오후 7시 30분부터 오후 10시까지이다. 중계 시간 동안에는 월식 현상에 대한 설명도 들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을 경우 화천조경철천전문대의 어두운 밤하늘에서 대구경 1m 망원경으로 촬영한 성운, 성단, 은하 모습도 실시간으로 감상할 수 있다.

남영기기자

영주시, 풍기인삼소공인 사업설명회 개최

풍기인삼 소공인 공동 인프라 조성 및 경쟁력 재고



경북 영주시는 20일 오후 4시 풍기인삼 상공인협동조합 2층 교육장에서 '풍기인삼소공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했다.

영주시가 주최하고 (재)경북테크노파크(원장 하인성)가 주관한 이날 사업설명회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한 도의원, 소공인복지지원센터 관련 기관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준수하며 진행했다.

시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소공인복지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 안내, 센터에 도입될 시설장비의 수요조사, 지역 내 인삼제조분야 소공인들의 여러 의견 수렴을 통한 소공인들과의 소통을 위한 자리 마련을 위해 개최했다.

'소공인 복지지원센터 구축·운영

사업'은 지역 내 인삼제조분야 소공인들이 공동 이용가능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인삼제조업의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총 사업비 78억원을 투입해 올해 연말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지원센터는 풍기읍 서부리 165-4번지 일원에 1085㎡ 규모로 설립될 예정이며, 공동장비구축과 교육장, 스튜디오, 문화공간 등으로 구성된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장욱현 시장은 "소공인복지지원센터 구축·운영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영주시, 경북테크노파크, 관내 소공인들의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며, "소공인들 스스로가 복지지원센터의 주인이라 생각을 가지고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기현기자

포항시 죽장면 (주)포항웰빙푸드, 쌀국수 가공공장 준공



김천시, 송언석 국회의원과 국비 확보 정책간담회 가져

내년도 국가투자사업 추진상황 공유 및 현안사업 열띤 토론

김천시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엄중한 상황임에도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하여 미래성장 동력을 위한 국가투자예산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지난 20일 시청 3층 강당에서 김충섭 시장 주재로 송언석 국회의원과의 배낙호 상임부위원장, 김태홍 사무국장을 비롯한 보좌진과 국·소장 및 실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2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를 위한 송언석 국회의원과의 함께하는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국비사업은 매년 4월 말 경북도를 통해 각 중앙부처로 신청되고 5월 말까지 각 부처 심사를 거쳐 기제부 로 제출하고 있어, 이에 국회의원과 의 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이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공론의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기획예산실장의 전년도 국비확보 실적과 내년도 주요 건의사업 총괄보고에 이어 ▲반다비 어울림센터 생활SOC 복합화사업 ▲튜닝카 성능 안전 시험센터 건립 ▲국도 대체우회도로(양천~대항)건설사업 ▲봉산지구 배수개선사업 ▲간이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남부내륙철도(김천~거제) 건설사업 ▲국도 59호선(김천~구미) 확장사업 ▲아포하수처리장 증설사업 등 15개 주요사업과 ▲신 산업단지 조성추진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조성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광역교통망 구축 등 5개 현안사업에 대하여 보고 하였다.

이어서 김충섭 시장 주재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응전략과 현안사업 추진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으며 특히, 교통안전 멀티플렉스 운영비 국비확보와 과수 중심의 다양한 농산물 생산과 사통팔달의 교통여건을 적극 활용한 농산물종합유통타운 조성에 대한 열띤 토론 끝에 농림축산식품부의 시범사업 추진을 건의하며 송언석 국회의원의 적극적인 협조를 이끌어 냈다.

김충섭 시장은 "현재 우리시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로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시설점검을 실시하는 등 조속히 안정을 되찾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으며, 또한 "올해 예산 1조 1,200억원 달성에는 전년 대비 국·도비 확보액이 22.4% 증가했기에 가능했으며 시 재정확충에는 국비 확보가 절대적이지니 만큼 송언석 국회의원과 힘을 합쳐

적극 대응하겠다"라고 했다. 또한, 송언석 국회의원은 "김천시 발전을 위한 토론의 시간을 마련해 주신 시장님께 감사드리며, 지역주민을 위한 저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기 위해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하겠다"며,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적극 협조 하겠다"라고 했다.

한편, 김천시에서 그간 역점적으로 추진해왔던 김천~거제간 남부내륙고속철도 건설과 김천~문경선 연결사업 등 철도건설사업 4개 사업이 국토교통부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전부 반영되는 해기를 이루며 철도교통의 허브도시로의 발전이 현실화 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김천 발전을 앞당겨 '시민모두가 행복한 김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국가투자예산 확보 활동을 적극 펼칠 계획이다.

김세기기자



연간 900톤 지역산 쌀 소비, 최고 품질의 쌀국수 생산

포항시 북구 죽장면 현내리에 위치한 쌀국수 가공공장인 ㈜포항웰빙푸드가 20일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제품생산에 돌입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 김정재 국회의원(포항 북구)을 비롯한 시·도의원, 농업인단체, 수출업체, 마을주민 및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했으며, 행사는 경과보고, 기념사, 내빈축사, 테이프 커팅, 공장시설 내부 라운딩 순으로 진행됐다.

라운딩을 안내한 최규열 대표는 쌀가루 반죽, 압축, 숙성, 냉·해동, 건조, 절단, 소포장에 이르는 제품의 전 생산과정을 직접 설명 및 시연하며 참석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냈다. ㈜포항웰빙푸드는 부지면적 2,973㎡, 건축면적 1,350㎡에 총 사업비 27억 원을 투입해 최고 품질의 쌀국

수를 생산할 수 있는 현대식 식품 가공시설을 갖췄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쌀국수는 기름에 튀기지 않는 것이 특징이며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이 함유되지 않은 건강한 제품으로 김치맛, 멸치맛, 사골맛, 소고기맛, 해물맛, 닭고기맛 총 6종의 맛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연간 900톤의 지역산 쌀을 가공 생산하는 대규모 쌀국수 가공 공장으로서 국내 대형마트, 로컬푸드 직매장, 농협 하나로마트, 이커머스 판매를 강화해 국내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루마니아, 캄보디아 등 해외시장도 적극 공략해 나갈 계획이다.

㈜포항웰빙푸드 최규열 대표는 "지역에서 생산하는 쌀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가공해 판매 및 수출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가장 인정받는 중

합식품회사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며, "지역농산물 사용, 일자리 창출 등 지역과 상생경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말했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쌀 소비를 늘리는 것은 국가의 기반인 농촌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중요한 현안으로 대규모 쌀국수 공장 준공으로 쌀 소비 진작을 선도하고 일자리 창출과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며, "농식품 가공업체들이 포함에서 잘 정착해 사업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는 등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포항시는 원물 가격, 포장용기 가격 상승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항웰빙푸드에 포장비용, 물류비용, 추후 제2공장 증설에 따른 시설비, 장비구입비 지원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김기현기자

부산시, 'ICT융합 디바이스개발' 공모사업 선정

산복도로나 급경사 등 부산지역 도로환경에 적합한 지능형 교통시스템 초석 마련

부산시는 지역기업인 ㈜소나무정보기술과 동의대학교 부산ICT융합부품연구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주관하고 조달청이 협력 추진하는 「2021년 ICT 융합 디바이스개발」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부산시는 총사업비 7억 500만원 중 국비 5억 2,500만원을 확보하여 2년간(21~22년) 'IoT기반 스마트 세이프 가드레일 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주요 기술개발 내용은 ▲IoT기반 스마트 세이프 가드레일 개발 ▲CCTV 사고영상 수집 및 분석 기능 개발 ▲스마트 세이프 가드레일 운영시스템 개발 ▲후방차량 사고 안



내 LED 전광판 개발 등 다양한 도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발할 예정이다.

근년에는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내년에는 부산지역 산복도로 2개소(서구 암남동, 동대신동 일원)에 현장

실증 테스트를 거쳐 우수조달 등록 후 제품 상용화를 목표로 단계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도심지 외곽도로나 인적이 드문 도로구간의 교통사고에 대한 골든타임을 사수하여 운전자의 안전 및 부산의 도로상황에 가장 적합한 데이터 축적을 통해 향후 지능형 교통시스템의 초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형준 시장은 "안전에 취약한 도로를 대상으로 'IoT기반 스마트 세이프 가드레일 시스템'이 도입되면 교통사고 발생 시 신속한 상황 파악과 후속 조치로 인명과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어, 효율적인 도로 안전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궁영기기자



창원시, '올해의 최고 경영인·노동인' 시상식 개최

최고 경영인 (주)경한코리아 이상연 대표

산청군 산청읍서 쌍둥이 송아지 2쌍 잇따라 탄생

"울산 찾는 겨울철새 종과 개체 수 늘어나고 있다"

전년도 70종, 13만 5,000에서 올해 90종, 14만 3,000으로 멧황새, 독수리, 대백로 등 첫 관촬

태화강과 동천 등 울산을 찾아오는 겨울 철새들이 종과 개체가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 말까지 '겨울철 조류 모니터링'을 자체 실시한 결과 총 90종, 14만 3,532개체가 관찰되었고 2020년 70종, 13만 5,103개체 대비 20종, 8,429개체가 증가해 매년 종과 개체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 태화강 하구, 중류, 동천 중심 7개 지점에서 올해는 태화강 중상류, 동천, 선암호 등 10개 지점으로 조사 지점을 확대했고 모니터 요원으로 조류관찰자(버드워처) 양성교육 수료자를 많이 투입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요 겨울철새 현황을 보면, 한국에서는 보기 힘든 천연기념물 200호인 멧황새 어린 3개체가 회야호를 찾아왔다.

또 고성, 김해를 주 무대로 하던 독수리(천연기념물 제 243-1호)무리가 태화강과 국수천 일원을 잠자리로 하고 사연담 모래톱에서 활동이 확인됐다.

지난 2018년과 2019년 태화강을 찾아왔던 큰고니가 다시 찾아왔다.



11월 1마리가 왔다가 낚시 바늘에 걸리는 사고사가 일어났다. 이후 2마리가 시간차를 두고 태화강 중류를 찾아 겨울을 보냈다.

이들과 함께 온 큰기러기(멸종위기 2급) 1마리도 큰고니가 떠난 3월 이후까지 태화강에 머물렀다.

덧붙인 흰목물떼새(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는 태화강 중류 자갈밭에서 계속 확인되고 있다.

태화강 겨울 손님 중 가장 큰 개체는 떼까마귀, 갈까마귀다. 지난해와 비슷한 13만 여 마리가 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조류 중 최강자 맹금류인 황조롱이(천연기념물 제323-8호), 말뚝가리는 매년 태화강을 찾아오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철새모니터링을 한 태화강뿐 아니라 외화강 하구, 회야호, 선암호 등이 동아시아-대양주 철새이동경로 파트너쉽(EAAPP)에 철새이동경로 사이트(FNS)로 등재되었다"면서 "전문적 모니터링을 통해 자료를 구축하여 철새보호 정책 마련 토대가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김기현기자

산청군 산청읍 차탄마을에서 쌍둥이 송아지가 잇따라 탄생해 지역주민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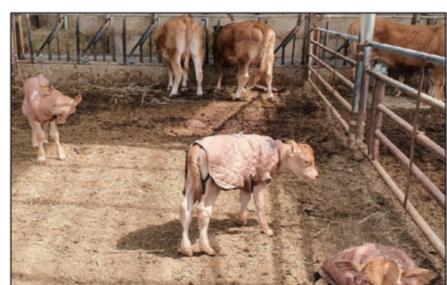
21일 산청읍행정복지센터에 따르면 2쌍의 쌍둥이 송아지는 차탄마을 우동석 이장 농가에서 태어났다.

한 어미소가 지난 4월30일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한데 이어 또 다른 어미소가 5월1일 쌍둥이 송아지를 출산했다.

우동석 이장은 "소는 보통 1마리의 새끼를 낳기 때문에 쌍둥이를 출산할 확률이 매우 낮다. 그런데 어미소 2마리가 각각 쌍둥이를 낳은 것은 극히 드문 현상"이라며 "상서로운 징조라고 생각한다. 좋은 기운이 널리 퍼져 코로나19가 하루빨리 물러가길 바란다"고 웃음 지었다.

신현영 산청읍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에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와 힘과 용이 난다"며 "주민들이 코로나를 잘 극복 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창원시는 21일 오전 10시30분 접견실에서 창원경제를 빛낸 '올해의 최고 경영인·노동인상' 수상자로 (주)경한코리아 이상연 대표, 기자자동차(주) 박태우 기술 선임을 선정하고 시상식을 가졌다.

올해의 최고경영인·노동인 상은 지역발전의 원동력인 기업인과 노동인의 공로를 격려하고 자부심을 고취시키기 위해 수여하는 상이다. 수상자는 2005년 9월 지자체 최초로 설립된 기업명예의 전당에 상반신 동판과 관련 공적자료가 2년간 선정되며, 이후 동판은 영구 보존하게 된다.

올해의 최고 경영인 상 수상자인 이상연 대표가 이끄는 (주)경한코리아는 자동차용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다. 1984년 경한정밀을 시작으로 세계적인 자동차부품 제조 회사에 납품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자동차부품 스마트공장을 구축해 제품생산성과 품질 향상에 힘쓴 결과 2020년, 전년대비 매출 32% 증가라는 커다란 성과를 냈다.

또한 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해 기숙사 3개, 식당, 체력단련실 등을 신축하고, 장기근속기념 표창, 주거자금대여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최상의 근무환경에서 생산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가족적인 모범조직문화 형성에 일조했다.

아울러 사회균형발전을 위해 3년간 총 7억9000만원을 다양한 소외계층에 후원해 기업의 사회공헌 분위 조성에도 크게 기여했다.

올해의 최고 노동인 상 수상자 박태우 노동인은 기자자동차(주)에서 자동차 정비 및 기술개발 분야에 28년간 정사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자동차 정비 매뉴얼을 개발하고 신차에 신기술을 적용하는 등 자동차 정비 분야에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또한 기술향상에 전념하여 전국 기능경진대회 및 경상남도 기능경진대회에서 입상하고, 도지사 기술자문위원 활동을 하면서 산업 기술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다. 정비업체 및 학교 초청강의를 통해 자동차 정비분야에서 우수기능인으로서 타의 귀감이 되고 있다.

이 외에도 소외계층시설봉사, 헌혈 활동, 장애우 자동차 및 휠체어 정비 등 다양한 봉사활동 등 지역사회공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지역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사회공헌활동에 앞장서주신 기업인·노동인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박유식대기자

전북도,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 조성건의

전라북도가 중앙부처별 막바지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점에, 20일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조성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등 막바지 국가예산 확보활동에 박차를 가했다.

지난 3월부터 송하진 지사를 비롯하여 최훈 행정부지사와 우범기 부지사가 차례로 광복 회보를 이어 온 전라북도는, 이날 우범기 정부 부지사가 바통을 이어받아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등을 순차적으로 방문해 막바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우 부지사는 먼저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구축된 1~2단계 모빌리티 실증인프라에 이어, 3단계 최종 실도로 실증단계 구축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으로 조성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고 요청하였다.

지난 2018년에 완료된 1단계 새만금 상용차 자율주행시험장은 낮은 수준의 저속주행이 가능하고, 올해 준공 예정인 2단계 새만금 방

조제 하부도로 시험장은 새만금 4호 방조제 하부도로와 명소화 부지 곡선도로에 구축하여 국내 최장의 고속 자율 주행 주행평가가 가능하다.

이날, 우 부지사가 요청한 3단계 사업으로 새만금 지역에 C-ITS(차세대지능형교통시스템)을 연계한 기능별 자율주행 인프라가 구축될 경우 80km/h 이상 고속 주행 및 곡선로가 반영된 테스트와 일반차·자율차 공동 운행 기반의 실증사업이 가능해지며, 세계 최고수준의 모빌리티 실증지역이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우 부지사는 해양수산부를 방문하여 서해중부의 풍부한 수산 자원을 활용하여 새만금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을 위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로 14억원 반영을 건의하였다.

새만금 스마트 수산 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은 연간 1천억원에 이르는 수산물 위판물량이 낙후된 가공유통 구조로 원물상태로 유통되고 있는 실정으로, 연구개발 및 유



통 활성화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새만금산단 2공구 약 1만평에 수산식품 R&D센터와 협력지원센터 등이 포함된 사업이다.

이 사업이 준공되면 지역 어업인의 염원 해소 및 소득증대는 물론 수산식품 유통·가공산업의 발전으로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수산물물의 안전성 향상과 특산화를 추구할 수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기획재정부를 찾아



정읍시, ‘도시 숲 조성’으로 경관 살리고 미세먼지 낮추고~

총 40억원 투입, 제3 산업단지과 수성동 생활권 인근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

정읍시가 미세먼지 유입을 차단하고 도시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미세먼지 저감 숲 조성에 나섰다.

시는 지난 2년간 제2 산업단지 내 미세먼지 저감 숲 2개소를 조성한 데 이어 올해는 북면 제3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와 수성동 시민 생활권 일대에 40,000㎡ 규모의 미세먼지 저감 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총 4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공기정화 기능이 있는 1만7,000여 본 이상의 수목을 심어 공단과 시민 생활권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시민들의 건강권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미세먼지 저감 숲’은 내부의 공기 흐름을 적절히 유도하고 수목의 줄기, 가지, 잎 등의 접촉면을 최대화해 숲이 가지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든 숲이다.

지난해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5월 중 착공을 시작한 2022년 4월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시는 북면 제3 산업단지 완충녹지에는 편백나무와 가시나무, 무궁화

등을 심어 공단 주변 경관 개선은 물론 근로자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특히 나뭇잎이 넓은 수종을 북층·다층으로 심어 잎·줄기·가지 등 수목 접촉면을 최대화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수성동 아파트 단지 주변 생활권에는 경계부에 교목과 정원수를 식재한다.

또 부지 내 산책로를 조성해 기존 충무공원 등산로와 연계한 숲길 네트워크를 구축, 시민에게 숲을 통한 힐링 공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되면 미세먼지 감소는 물론, 여름철 열섬현상도 완화돼 주민 생활 여건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미세먼지 저감 숲이 조성되면 도시경관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은 물론, 산업단지 근로자와 지역 주민이 정서적으로 안정을 되찾는 치유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전북도-연해주간 원원 교류협력 시작

양 지역간 국장급 화상 회의를 시작으로 '21년 전북도-연해주간 교류추진

전북도가 신북방국가 교류의 교두보 지역인 연해주 정부와 21일 전북도 국제교류센터에서 제1회 양 지역 국장급 화상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2019년 9월 전북도와 연해주간 교류의향서를 체결한 이후 농업, 관광 등 교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던 중, 코로나19 확산으로 계획된 교류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루어진 첫 번째 화상회의로 전북도 한민희 대외협력국장, 연해주 알렉세이 스타리치코프(СТАРИЧКОВ Алексей Юрьевич) 국제교류청장 등 6명이 참여했다.

이번 화상회의에서 전북도와 연해주간 주요 논의내용은,

앞으로 전북도와 연해주는 이번 회의의 결과에 따라 곧바로 한국어와 러시아어교류 양 지역의 관광, 정책정보 등이 업로드된 인스타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농업, 음식 문화 등 분야별 전문가, 공무원, 교수 등 20여명이 참가하는 온라인 세미나를 6월중에 개최함으로써 양 지역의 상생 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모색할 계획이다.

또한, 화상회의에 앞서 전북도는 양 지역의 문화교류 일환으로 해외



최초로 한국어학과를 개설한 연해주 극동연방대의 한국어학과 학생을 대상으로 17일부터 전북도 전통문화연수(‘버꾸춤’ 영상 교육)를 총 10회 추진할 계획으로, 연수 시작에 맞춰 기념식과 버꾸춤에 사용할 ‘북’ 전달식을 개최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연해주 정부, 극동연방대 한국어학과장, 한국어학과 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러시아 연해주 거주 전북도 전법수 국제교류자문관이 우리도 대표로 참석하여, 대외협력국장 축사를 대독하

였다.

전북도 한민희 대외협력국장은 “러시아 연해주는 우리도 첫 번째 신북방 국가 교류지역으로 향후 북한, 중국, 유라시아, 동북아 등 교류 추진을 위한 중요한 요충지”라며, “앞으로 극동연방대, 고려인 민족학교 등을 통한 공공외교 활동과 함께 연해주 정부와 우리도가 상생 발전 가능한 분야를 면밀히 분석하여 전략적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승일/기자

순창산 커피 올해 첫 수확, 고급화전략 모색

지난 21일 순창읍 복실리

과학연구실증포, 다음달까지 수확 예정



순창군이 지난 21일 순창읍 복실리 과학영농실증포에서 순창산 커피의 올해 첫 수확을 알렸다. 이날 과학영농실증포에 모인 관계자 5명은 커피나무에 열린 열매를 비지땀을 흘리며 하나씩 정성스럽게 따다. 이날 수확한 커피원두는 전량 (재)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에 보내져 커피 가공품 개발에 쓰여질 계획이다. 이날 수확을 시작으로 다음 달까지 매주 수확이 이루어질 계획이다.

군은 지난 2016년 기후변화에 대비해 현대인의 기호성을 반영한 커피 재배를 시작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순창산 커피 수확을 시작했다. 현재 과학영농실증포에서는 커피 중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아라비카종인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이 각각 200주와 130주가 재배되고 있다. 군은 ‘크리스탈 마운틴’과 ‘만델리’ 품종을 각각 화분과 토경에서 재배하면서 지역적응성을 검증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커피재배의 기술력을 높이고자 커피 발아시험을 진행해 추계 원예학회지에 관련 내용을 발표하기도 했다.

군은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와 긴장마로 인해 커피의 꽃이 피지 않는 현상으로 커피 수확이 어려울 것으로 보였으나 세심한 관리 덕분에 올해도 수확할 수 있게 됐다. 군은 이번에 수확한 커피원두를 국내산 커피라는 이점을 활용해 한 정수량으로 판매할 계획도 세웠다.

커피원두에 미생물을 활용한 발효 기술까지 접목시켜 맛과 풍미가 우수하고 발효의 깊은 맛을 느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군은 발효커피 리턴(REDONE)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 이번 국내산 커피 원두를 접목시키면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숙주 군수는 “기존 발효기술을 접목한 외국산 커피원두가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어 이번에 순창산 커피원두를 가미한 프리미엄 상품출시를 계획하고 있다”면서 “일반 커피원두와의 차별화를 통해 순창산 커피를 알리는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선수/기자

임실군 故지정환 신부 깊은 인연 한 사진작가의 ‘아름다운 선물’

임실N치즈의 아버지 故 지정환 신부와 인연이 깊은 한 사진작가가 1900년대부터 사용된 카메라와 영상기기 등을 대거 임실군에 기증했다.

18일 심 민 군수는 광주광역시에서 거주하는 구영웅(82) 씨를 직접 만나 그동안 수집한 소장품 67점에 대한 기증협약을 체결했다.

구씨는 “선종하신 지정환 신부님과 인연이 있어 임실군을 자주 찾았다”며 자신이 수집해온 소장품을 전달했다.

이날 구씨가 기증한 소장품은 카메라 57점, 도서 및 CD 10점 등 67점이다.

이 소장품은 1900년대 초반부터 2000년대까지 사용되었던 접이식 필름카메라(1920)로부터 이안 반사식 필름카메라 외 삼성, 금성, 소니, 니콘, 캐논 등에서 출시한 다양한 제품이다.

구씨는 “故 지정환 신부님과 인연이 있어서 임실군을 자주 찾았고, 읍내에 서식하고 있는 왜가리 서식지는 보기 드물게 사진 촬영하기 좋은 곳”이라며 “이번 기증을 통해서 영상 관련 전시가 임실 발전에 도움이 되

길 바란다”고 전했다. 군은 기증받은 소장품을 앞으로 건립될 임실치즈역사문화관에 전시할 예정이다.

구씨는 1939년 광주에서 출생하여 광주사범대학교를 졸업하고 교직에 몸담았으며, 한국사진작가협회 정회원, 광주광역시 사진대전 초대작가, 광주광역시 교향악단 창립 단원으로 활동했다.

1950년대부터 모으기 시작한 영상 장비, 음향 장비 등이 2,500여 점에 이른다.



최하은/기자



김현태/기자

전남교육청, 학교시설 통합관리로 '일석이조' 효과 기대

영암군 독천초등학교는 최근 교내 폐기물 처리를 진행하면서 전에 없이 빠르고 효과적인 장면을 경험했다. 예전 같았으면, 학교에 배치된 시설관리직원 1명이 이 일을 처리하느라 수일이 걸렸으나, 영암교육지청 소속 통합관리 인력 3명이 현장에 나와 단 몇 시간 만에 마무리할 수 있었다.

강진군 칠량중학교도 최근 강진교육지원청 통합관리 인력이 출동해 관사 철거 공사와 함께 폐기물 처리를 진행했다. 예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결원대체 직원 혼자서 일을 처리하느라 효율성이 크게 떨어졌으나, 교육지원청 내 통합 관리 인력이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해 완성도와 만족도가 전에 없이 높아졌다.

전라남도교육청의 학교 시설관리 시스템이 기존 학교별 관리에서 지

역 단위 통합관리로 전환된다.

위의 예에서 보듯, 기존 시설관리 직렬의 결원 확대에 따른 학교의 대체인력 채용 어려움을 해소하고, 다양한 시설관리 수요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업무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전라남도교육청은 학교 시설관리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 순천, 영암, 강진 등 3개 지역 18개 학교(지역별 6개교)를 대상으로 올 4월부터 연말 까지 학교시설 통합관리를 시범 운영 중이다.

학교시설 통합관리는 시·군 교육지원청에 학교시설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해 학교 시설물에 대한 순회점검과 유지·보수 업무를 진행하는 제도로 기존의 학교별 관리에 비해 인력 및 업무의 효율성

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수목관리, 제조작업, 배수로 정비 등 학교 공통 시설사업은 교육지원청에서 외부 용역 계약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업무 및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한 달여 동안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현장의 만족도 또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행 후 첫 모니터링 회의에 참석한 도암중학교 김현 행정실장은 "처음엔 학교에 시설관리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걱정했으나 실제 운영을 해 보니 교육지원청에서 더 전문적이고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해줘 구성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면서 "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12월까지 시범

사업을 운영한 후 학교구성원들의 만족도 조사와 사업 성과분석을 통해 타 시·군 지역으로까지 확대 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기존 학교별 시설관리의 경우 시설관리 직렬 미충원으로 결원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결원 대체 인력을 운용하는 데도 채용업무 번갈, 고령자 처우 등의 문제가 발생해 업무의 효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도진 전남교육청 총무과장은 "학교 시설관리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및 예산 운영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특히, 외부 용역은 사회적 기업 및 재할단체에 기회를 줌으로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신안군,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임대사업 효과 높아

새로운 수산정책 패러다임 변화 시도

신안군이 2019년부터 전국 최초로 실시하여 올해로 3년째인 "청년이 돌아오는 어선 임대사업"으로 완료된 청년소득 임대어선 4척에 대하여 이뤄졌던 취항식을 지난 18일 흑산도에서 개최하였다.

2019년 이후 전국에서 신안군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본 사업은 어업에 종사하고 싶어도 여건상 어려운 청년 어업인에게 어업기반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군비 27억원이 지원되어 8척의 어선을 임대 운영 중이며, 올해에도 5억원의 군비를 확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신안군이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은 어선과 어구를 신안군이 구입하여, 어업인에게 임대해주는 사업으로, 어업인은 연간 사업비의 0.5%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며 어업을 경영하는 형태로, 임대료 납부와 함께 월급 상환을 완료하면 어선의 소유권을 어업인에게 이전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신안군 관계자는 "최근 2021년 사

업추진에 앞서 실시한 수요조사에 215명의 어업인이 101척의 어선을 신청할 정도로 인기가 높아 정부 시책사업으로 추진된다면 더 많은 청년 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2022년 국비 보조사업이 시행될 경우 코로나 19로 인한 경기침체 극복 및 귀어 청년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청년들이 전사업으로 돌아와 일자리를 갖고 소득을 올려 모두가 잘사는 신안건설이 목표이며, 천사8호에 이어 천사100호, 천사200호까지 탄생 될 수 있도록 어업인들과 귀어를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젊어지는 섬, 청년이 돌아오는 섬으로 만들 계획이다"고 밝혔다.

현재 임대어선은 흑산 4척, 비금·중도·도초·하의면에 각 1척씩이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까지 3천여명의 임대료와 월급이 징수되었으며, 7억5천만원의 위판고를 올리고 있다.

조기석기자

여수시,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 '내년 7월 개통'

공정률 75.9%, 해상교량 550m, 진입도로 604m 총 1,154m, 왕복4차로

여수시가 웅천택지 준공에 따라 극심해진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웅천~소호 간 해상교량이 공정률 75.9%로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

해상교량을 포함한 웅천~소호 간 도로가 완공되면 도심 내부순환도로 기능을 해 교통체증을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수시는 사장교 220m, PSC 거더교 330m를 건설해 웅천 예술마루와 소호 황호마을을 연결하고 있다. 길이는 총 1천154m의 왕복 4차로로, 해상교량이 총 550m이며 진입도로가 604m에 이른다.

2018년 7월 착공해 현재 교량 주탑 시공이 마무리되었고, 내년 3월 교량 상판과 케이브 거치를 완료하고 내년

7월 개통할 계획이다.

특히 해상교량은 이순신 장군의 장검과 가막만을 순항하는 요트를 형상화 해 여수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새로 건설되는 해상교량에 경관조명을 설치해 웅천동, 소호동의 해변과 어우러지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여수밤바다가 탄생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돌산대교, 거북선대교와 함께 새로운 여수의 관광명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웅천에서 생태터널, 망마삼거리를 거쳐 여수시청까지 오가는 도로는 단일노선으로 대체도로가 없어 출·퇴근 또는 교통사고 발생 시 심각한 교통정체를 빚고 있다.

이남출기자



함평군 학교면, 주거취약계층 위한 '클린-UP 복지-UP' 사업 실시



함평군 학교면은 지난 17일 지역취약계층을 위한 주거환경개선 사업 '클린-UP 복지-UP'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클린-UP 복지-UP' 사업은 주거환경 또는 위생이 열악한 주거취약가구를 대상으로 소규모 수선, 청소 및 방역을 지원하는 지역특화사업으로 민관이 협력해 추진하고 있다.

이번 대상가구는 뇌병변장애가 심한 독거노인가구로 거동이 불편해 청소·방역 등 위생관리에 도움이 필요했다.

이날 사업에 참여한 관내 업체 영수환경은 재능기부를 통해 2톤 가량

의 생활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안방과 화장실 등 실내 청소와 분부 소독을 실시했다.

영수환경 유성현 대표는 "지속적인 재능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이 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옥미 학교면장은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 깨끗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도움주신 영수환경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조기석기자

강진군, 영농철 인력부족 해소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상해보험 가입, 교통비는 센터에서 지원... 농가는 근로자 임금만 부담하면 돼

강진군이 지원하고 강진농협이 운영하는 농촌인력중개센터가 부족한 일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에 단비가 되고 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짐에 따라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촌인력중개(지원)센터를 운영한다.

강진 농촌인력중개센터는 강진농협 주유소 옆에 자리잡고, 강진읍·군동·성전영농회와 원활한 인력 알선을 위한 인력수급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근로자의 농·작업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관내·외 출퇴근 근로자 교통비 등은 인력중개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어 농가는 근로자 임금만 부담하면 된다. 이 외에 농가별 인력배분 계획을 수립하고, 농작업 현장을 방문해 인력 관리와 작업 지도 등을 통해 일손부족 농가의 시름을 덜어주고 있다.

이승욱 강진군수는 "농촌지역의 노령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외국인계절근로자 도입 중단 등으로 농촌인력수급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인력중개사업을 통해 농촌

일손부족 해소와 일자리 창출 효과를 동시에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촌인력중개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일자리 참여자나 일손 부족농가는 인력중개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통해 구인·구직신청을 하면 되며, 중개 수수료는 무료이다.

김장길기자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나주

에너지밸리 성공을 뒷받침할 에너지 4대특구 완성

국가혁신
융복합단지

에너지산업
규제자유특구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강소연구
개발특구

강원도 춘천시 예술영화에 대한 갈증, 레인보우시네마에서 해소된다

2021 레인보우시네마 상영회 6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개최

‘그래도 우리는 극장에 간다. 그곳에 영화가 빛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1 레인보우시네마 상영회가 펼쳐진다. 수준 높은 예술영화에 목마른 관객들에게 가끔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춘천시정부는 6월 한 달은 다양한 영화 상영 기간으로 정하고 6월 2일부터 매주 수요일 오후 7시 레인보우시네마 상영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레인보우시네마 상영회는 표현의 독창성과 특별한 비전을 가진 신인 감독의 작품부터 이름만으로도 향

할한 세계적 거장의 최근작을 모아 관객에게 선물하는 자리다. 2021 레인보우 시네마 상영회에서 만날 수 있는 영화는 심해정 감독의 ‘육창’(6월 2일), 쉐린 시야마 감독의 ‘타오르는 여인의 초상’(6월 9일), 이승원 감독의 ‘소통과 거짓말’(6월 16일), 백윤진 감독의 ‘내 언니 전지현과 나’(6월 23일), 페드로 알모도바르 감독의 ‘페인 앤 글로리’(6월 30일)다. 상영장소는 남춘천 메가박스 2관이며 무료 상영이지만 선착순 50명까지 입장할 수 있다. 특히 레인보우시네마 상영회의 모

든 작품에는 감독을 비롯해 관련 영화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상영이 끝난 후 관객과 대화를 나눌 예정이다. 모든 관객과 참여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방역지침을 이행해야만 한다. 안효란 문화콘텐츠 과장은 “이번 상영회는 전체적으로 춘천시 문화도시 정책에 계를 같이 하고 있다”라며 “시민들이 다양한 영화 영상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일환”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히 조창호 감독이 프로그래머로 참여하여 심혈을 기울여 선

정한 다섯 편의 작품은 박윤진 감독의 ‘내 언니 전지현과 나’ 같은 귀엽고 아기자기한 다큐멘터리부터 세계적인 마스터 페드로 알모도바르의 ‘페인 앤 글로리’에 이르기까지 어느 한 편도 놓칠 수 없는 작품이어서 코로나19로 인해 더 많은 관객을 모실 수 없는 게 안타까울 정도” 부연했다. 한편 시정부는 기존의 춘천SF영화제에 이어 서면의 애니메이션 박물관 야외 잔디밭에서는 토요일에 ‘프라이브’를 추가해 대중적인 관점에서 영화상영을 서비스하고 있다. 최재은/기자

정선군, 건강한 먹거리 봄철 임산물 드라이브스루로 구입하세요

정선군은 청정 정선산에서 생산되는 건강한 먹거리인 봄철 임산물을 드라이브스루 판매를 진행한다. 군은 정선군산림조합(조합장 전학규)과 협업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임산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선공설운동장에서 오는 5월 22일과 23일, 27일, 29일, 30일 등 5일간 특판 판매 행사를 연다. 이번 판매행사에는 전국 최고의 청정지역인 정선에서 자란 봄 향기 가득한 맛과 영양이 뛰어난 곧드레, 공취, 취나물, 산양삼, 산새삼, 어수리 등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매하며, 드라이브스루와 병행해 건강한 먹거리 선물을

위한 택배와 전화 주문을 함께 진행한다. 또한 드라이브스루로 구입하지 못한 소비자들을 위해 우체국쇼핑몰을 통한 온라인판매를 실시하고 있다. 군에서는 임산물을 100% 국내산을 판매하고 있으며, 판매 품목 원산지 및 생산자 실명표시 등 소비자자들이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청정 정선의 이미지와 함께 신뢰도를 높여 나가고 있다. 산나물 팔아주기 특판 행사와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정선군청 산림과 산림휴양팀 및 정선군산림조합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근수/기자

강원 고성군, 5월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납부 합동도움창구 운영

강원 고성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5월 신고대상인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한다. 합동도움창구는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지자체로 전환됨에 따라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해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한 바 있다. 이에, 올해도 국은 납세자의 불편을 방지하고자 속초세무서와 함께 행정지원에 나선다. 오는 5월 24일부터 5월31일까지 6일간 고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고성군청과 속초세무서 담당자가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해 종합소득세 신고와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한 번에 접수, 처리할 수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모두채움대상자 중에서 만 65세 이상 고령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정해 운영한다. 모두채움대상자란 국세청에서 수입금액부터 최종 납부세액까지 기재된 개인지방소득세 납부서와 종합소득세 신고안내문이 함께 발송되는 납세자이다. 모두채움대상 납세자는 기재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 발송된 납부서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는 도움창구 방문없이 PC 및 모바일에서 신고·납부가 가능하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친 후 위택스에 자동 연계됨에 따라 간편하게 개인지방소득세도 신고할 수 있다. 국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19 확

산방지를 위해 일부 납세자에게만 합동도움창구를 운영하게 돼 안타깝게 생각되며 내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등원/기자



횡성 군용기 소음 피해, 민관 협력으로 공군본부 반응 이끌어내

횡성군은 20일 오전 10시, 횡성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군본부의 찾아오는 주민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날 설명회는 공군본부 정책실장과 제8전투비행단장을 비롯한 군(軍) 관계자, 횡성군의원, 군 소음 피해대책위원회 위원, 비행장 주변 피해지역 해당 이장 등이 참석하였다. 공군본부 및 제8전투단은 설명회에서 그간 펼쳐온 군용기 소음 저감, 블랙이글스 스모크 관련 대책에 대하여 그간 가시적인 성과로 블랙이글스는 타기지 비행 훈련을 통해 작년 대비 횡성군 훈련 일정을 상당히 줄였으며, 스모크 사용도 횡성 상공에서 50%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엔진 점검시 발생하던 소음 역시 소음저감시설을 설치하여 120db에서 75db로 저감시켰음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민·관이 참여한 가운데 보다 투명하게 스모크 관련 대기환경영역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이와 함께 근본적인 해결방안인 블랙이글스 해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전 또는 순환 배치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지역 주민들은 장기적 검토 및 저감 대책에 대해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수치화되고 문서화된 확인 과정을 촉구하였으며 공군참모총장과의 면담 또한 강력 요구하였다. 장신상 군수는 “그간 민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공군본부의 이번 주민설명회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앞으로도 공군본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군민들이 그동안 고통 받았던 군용기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아울

러 군민들께서 바라는 대로, 공군참모총장 면담을 통해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동희/기자



원주시, 지구와 썸 타기 "썸(CUP) 타러 갈래?"

제로플라스틱 원주 실현을 위한 시민 참여 순환형 환경컵 사용 캠페인

원주시와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탄소중립생활을 실천하기 위해 제로플라스틱 원주 프로젝트의 하나로 ‘썸컵’ 사용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 카페 16곳에서 음료 테이크아웃 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대신 순환형 환경컵 ‘썸컵’을 대여해 이용하고 참여 카페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반납할 수 있는 자발적 시민 참여 캠페인이다. 매장에 비치된 QR코드를 통해 대여와 반납을 선택하면 포인트가 적립되며, 썸컵 외에 개인 텀블러를 이용하는 경우도 포인트 적립이 가능하다. 일정 포인트 이상이 되면 커피 쿠폰 및 친환경 생활용품 세트 지급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속 배달앱 이용 증가 등에 따라 급격히 증가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많은 시민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일회용 플라스틱의 평균 사용 시간은 6개월에 불과하지만 썸하는 데는 무려 500년이 걸리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전 세계 플라스틱 생산량은 매년 8.4%씩 증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에 따르면 일회용 컵 사용량은 2007년 약 4억 2천만 개에서 2018년 약 25억 개로 해마다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원주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 사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개인 컵(텀블러) 사용”이라며, “미처 개인 컵을 준비하지 못했다면 썸컵을 사

용하면 카페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만식/기자

강원도·홍천군,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 육성 비전선포 및 협약식 개최

K-바이오 첨단산업 글로벌 핵심기지를 꿈꾸다

강원도와 홍천군은 국내 4대 바이오클러스터 반열에 오를 항체중심 신약소재 개발지원 클러스터 집중육성을 위해 오는 5월 24일 홍천문화예술회관에서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육성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개최한다. 본 행사에는 최문순 도지사, 허필홍 홍천군수, 유상범·허영 국회의원, 광도영 도의회 의장 등 주요인사와 춘천바이오산업진흥원장, 원주의료기기테크노밸리 원장, 강릉과학산업진흥원장 등 유관기관장, GC녹십자랩셀, 유바이오로직스, 이문메드 등 도내의 우수한 바이오기업 및 강원대학교병원장, 한림대학교 춘천성심병원장 등 도내 대학병원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도와 홍천군은 주요인사 및 유관기관장, 바이오기업 대표 등과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를 바이오산업 인터체인지로서 대한민국 신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메카로 급부상시킬 비전을 선포하고,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육성을 위해 강원테크노파크와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또한 도는 서울대연구소와 코로나 바이러스 닭항체(IgY)의 공동연구 및 산업화를 위해 일본 유전자 분석 및 항원·항체 제작 전문기업인 OMR사 대표이사가 임회자로 참석한 가운데 중화항체·항원 전문연구기관인 DDS프라이(일본)와 중화항체 글로벌 제조생산 유통기업인 (주)DDS BIO, 방역소독기·소독약제·항체 등 연구개발 업체인 (주)후니즈와 민·관·학 한일 다자간 공동협력 업무협약(MOA)을 체결한다.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4년간 홍천군 북

방면 일대에 총사업비 약 600억원을 투입하여 조성될 항체중심 신약소재 개발지원 클러스터로, 클러스터 내에는 코로나19 등 미래 감염병 대응을 위한 ▲ 중화항체 면역치료제 개발센터 ▲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클러스터 구축 시 중화·면역항체 초기 개발·상용화를 위한 항체 라이브러리와 C&BD 윈스톱 기술지원, 창업 육성은 물론, 맞춤형 인력양성 등 사업에 돌입한다. 그간 도는 홍천군·강원TP·스크립스·서울연구소와 함께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조성을 위해 국비사업 유지를 목적으로 노력해왔으며, 그 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중화항체 치료제 개발센터 구축사업”과 “면역항체 치료소재 개발지원센터 구축사업”이 각각 선정되어 국비 100억원씩 확보하였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지원 대상으로 도 출연기관인 스크립스 코리아항체연구원이 선정되어 “미래감염병 신속대응연구센터 구축”을 위한 국비 21억원을 확보하는 등 총 221억원의 국비를 확보한 바 있다. 이로써 도는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육성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홍천을 비롯한 도내 바이오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강원형 벤처펀드」를 지원해나갈 계획으로, 더 나아가 홍천-춘천을 바이오로드로 연결해 강원도 바이오산업의 선순환 생태계를 만들고 치료제 개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 벤처기업의 요람이 되도록 육성, 「홍천 국가항체클러스터」가 전국 바이오 인터체인지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이번 비전선포 및 협약식을 시작으로 홍천군, 강원테크노파크, 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서울대학교 시스템면역의학연구소와 협력해 홍천을 대한민국 최고의 신바이오테크놀로지 산업 메카로 육성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신종 감염병, 암·뇌졸중·치매 등 희귀 난치병 해결을 위한 K-바이오 첨단산업 글로벌 핵심기지로 역할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등원/기자





전남도 도민명예기자, 전남 행복시대 앞장

20일 소통의 장 마련...도·지역민 잇는 가교 한몫

전라남도는 20일 도청 정약용실에서 '내 삶이 바뀌는 전남 행복시대'를 널리 알리고 있는 도민명예기자 임원진과 간담회를 열고, 이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전남도 제11기 도민명예기자(지역 회장 박정숙·향우회장 채규진)는 지난해 8월 위촉됐다. 이들은 그동안 도청 소식지에 글을 쓰는 것을 비롯해 바자회와 워크숍, 봉사활동 등을 펼치며 도청 홍보와 함께 지역 여론을 도에 알리는데 기여했다. 지난해엔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행사를 추진하지 못했다.

이번 간담회에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를 비롯한 도민명예기자 임원진 12명이 참석, 주요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 그간의 아쉬움을 달랬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제

10기 도민명예기자 회장으로 도청 시책을 홍보해 도청 발전에 힘쓴 전미경 전 회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김영록 도지사는 "도민명예기자는 도와 도민을 잇는 가교(架橋)로 도청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활발히 활동하도록 힘껏 돕겠다"고 말했다.

총 129명으로 꾸려진 전남도 도민명예기자단은 매년 농번기 부족한 농촌의 일손을 거두고 있다. 또 각자 기증한 물품으로 바자회를 열어 마련한 판매수익금을 그늘진 이웃에게 전달하는 등 지역에 온정을 불어넣고 있다. 지난 2019년 강원도 산불로 피해를 본 이재민을 제 식구처럼 여기고 성금을 보내기도 했다.

김영만기자

진주시, 제14회 세계인의 날 기념 모범 외국인 표창

지역의 안정적인 정착 및 사회구성원 소속감·자긍심 고취

진주시는 20일 오후 4시 30분 시청 5층 상황실에서 제14회 '세계인의 날'을 기념해 모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세계인의 날은 2007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의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법정 기념일로 지정되었으며 그 1주일은 '세계인 주간'이다.

진주시는 2008년부터 매년 세계인의 날을 기념하여 결혼이민자 가족을 비롯한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 유학생 등 2000여 명을 초대하여 다양한 문화체험 프로그램과 공연으로 지역민과 함께 어울림 행사를 개최

했으나, 올해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념행사를 축소하고 모범 외국인 표창식으로 대체하여 진행하였다.

이날 표창식은 지역민으로서 문화차이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가정, 직장 등에서 모범적인 생활을 하고있는 외국인 근로자와 결혼이민자에게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시 관계자는 "올해 기념행사는 코로나19로 개최하지 못했지만 5월 20일 '세계인의 날'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최광용기자



정읍여성문화관,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에서 단체전 최우수상 수상

정읍시 여성문화관과 정읍문화원의 예절과 다도 수강생들이 제25회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에서 단체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김포다도박물관과 사단법인 예명원 주최로 진행된 '예절과 다도 경연대회'는 지난 15일 김포다도박물관에서 열렸다.

여성문화관과 문화원 수강생들은 배례법(바른 자세, 절하는 모습), 다례법(차 우리는 모습, 차 내는 모습, 차 마시는 모습), 걸음걸

이, 표정, 의복상태 등의 아름다운 자태를 선보였다.

단체전 수상자는 정미희 씨와 김선덕 씨, 백정옥 씨다.

예명원 박형숙 원장은 "생활 속 예의범절 실천을 위해 평소 예절과 다도에 관심을 갖고 배우며 준비해온 결실"이라며 "쾌적한 교육 환경 조성에 힘써주시는 정읍시와 문화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최하은기자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위원장에 박민식 후보 당선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7일, 18일 이틀간 실시한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 제7대 임원선거'에서 단독후보로 출마한 위원장 후보 박민식, 사무국장 후보 여형준이 당선됐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선거는 모바일 투표로 진행됐으며 투표 대상 조합원 977명 중 884명이 참여(투표율 88.67%)해 찬성 877명, 반대 7명으로 99.2%의 압도적인 지지 속에 당선됐으며 임기는 7월 1일부터 2년

동안이다.

박민식 위원장 당선자는 "어렵게 임후보자 등록을 결정하고 당선된 만큼 조합원들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여 조합원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는 아산시공무원노동조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당당한 노조, 건강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조합원님들의 지지에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재은기자

남해군, 자원봉사운영위원회 제6기 위원 위촉식 개최



남해군은 20일, 종합사회복지관 다목적홀에서 남해군자원봉사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자원봉사 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18명을 제6기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원 위촉뿐만 아니라 2020년 센터 사업실적 및 2021년 사업계획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신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했다. 또한 향후 위원회 운영 방향 등에 대한 활발한 토론이 이어졌다.

신임 위원장에는 등불 남해지부 박미선 지부장이, 부위원장에는 전 새남해라이온스클럽 김태주 회장이 각각 호선으로 선출되었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남해군의 자원봉사 인프라 구축과 민관 연대 및 협력에 있어서 자원봉사 운영위원회

가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위원회에서 나오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충남 군수는 또한 "새로 위촉된 신 위원들께 자원봉사 진흥을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남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의 임기는 2년으로 2023년 5월 19일까지 활동하게 되며, 임기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발전방안을 심의·결정하고 자원봉사활동의 발전에 관한 기본시책 수립 및 봉사단체 또는 봉사자 지원 등에 대한 실질적인 역할을 해 나갈 계획이다.

강영훈기자

동대문구 유덕열 구청장, 모범 자치단체장 대상 3연패

도심 속 힐링 숲 배봉산 정비... 주민 힐링 공간 조성 성과 인정 받아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이 5월 20일 오후 3시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모범 자치단체장 시상식'에서 리더십 부문 대상 수상자로 선정되어 3연패를 달성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모범 자치단체장 시상식은 도민 지역주민을 위하여 탁월한 기여를 한 각 분야의 자치단체장을 발굴, 이들의 도전정신을 기리고 분야별 시상식을 진행함으로써 자치단체장들의 위상과 자긍심을 제고하기 위해 마련됐다.

유 구청장은 이번 시상에서 동대문구의 명소인 배봉산에 정상공원 및 둘레길, 숲속도서관을 조성하여 배봉산을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조성해 주민들의 복리를 한층 증진시킨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아 리더십(행정)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배봉산은 높이 108m로 누구나 부담 없이 오를 수 있어 주민들의 많은 사랑을 받는 녹지휴식공간으로, 녹지공간이 부족한 동대문구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동대문구는 이러한 배봉산에 주민들이 쉬어갈 수 있는 녹지공간을 정비하고 전 세대를 아우르는 문화시설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다양한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는 코로나19 안전대책으로 둘레길 일방통행을 실시하고 주기적으로 방역을 추진하여 외출이 꺼려지는 시기임에도 주민들이 안심하고 배봉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배봉산 숲속도서관에 '구립도서관 감염병 위기대응 매뉴얼'을 적용해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주민들에게 지속적인 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지방 자치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수상자로 선정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더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앞으로도 다양한 세대가 배봉산을 방문하여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만식기자



최형식 담양군수,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 감사패 받아

코로나19로 지친 공직자 사기 진작, 노사 화합 기여

담양군은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서 최근 담양군정을 방문해 최형식 군수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최 군수는 담양군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김길엽)의 권익 신장과 노동조건 향상에 기여해왔으며, 정당한 노동조합 보장은 물론 행정·재정적으로 노조에 물심양면 지원해 준 공으로 전남지역 단위노조 추천을 받아 감사패를 받게 됐다.

최 군수는 코로나19 직원격려 특별휴가 실시, 점심시간 휴무제, 읍면 일

숙직폐지, 직원 휴게실 설치, 복지포인트 상향 등 직원 사기진작을 위해 노력했으며 건강한 직장생활을 위한 동호회 활성화에도 심혈을 기울여왔다.

최형식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의 노조원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이어 오고 계시는 전국시군구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감사하다"며 "우리 군의 공직자들이 행복해야 군민도 행복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소통하고 공감하며 균정을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오홍곤기자



강북구, 쿠바 이민 100주년 기념 특별사진전 개최

온라인 또는 전화로 사전 예약 후 관람 가능



강북구가 2021년 8월 18일까지 근현대사기념관 2층 기획전실에서 특별사진전 '기억, 잃어버린 역사의 흔적을 찾아서'를 개최한다.

근현대사기념관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사진전은 쿠바 이민 100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김동우 작가가 촬영한 52점의 사진이 준비됐다. 그는 오랜 기간에 걸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는 독립운동의 현장을 직접 방문하고 독립운동가 후손들을 인터뷰해 왔다.

독립운동가들은 먼 타국의 땅에서 굶주림, 차별 등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대한인국민회 지방회, 한인교회, 한글학교 등을 세워 정체성을 유지하고 조국의 독립운동을 위해서도 자급 모집 등의 활동을 해 왔다.

전시회에서는 쿠바 마나티 항구와 멕시코의 에나켄 농장 등 한인 이주 역사의 상징적인 장소와 3·1운동 2

시흥시, '사람과 자연이 살아숨쉬는' 호조벌 온라인 사진전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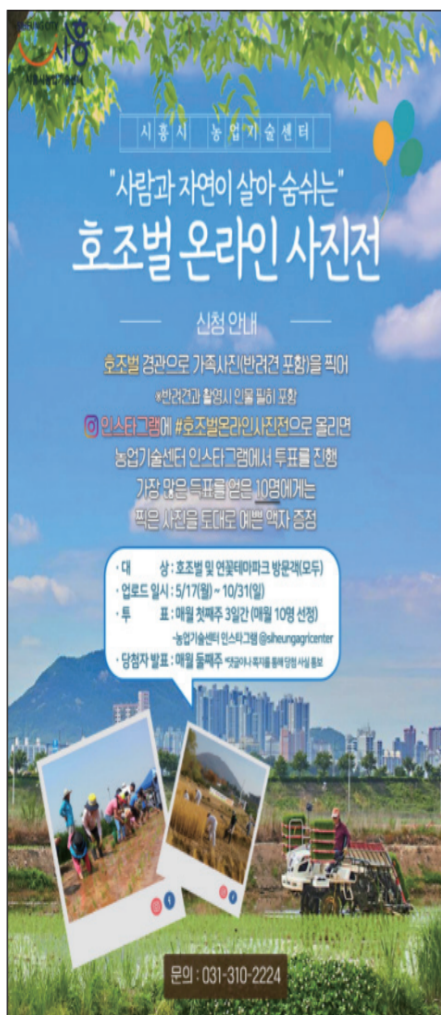
시흥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석현)는 호조벌 300주년을 맞아 시민들과 비대면으로 소통하기 위한 '온라인 호조벌 사진전'을 개최한다.

호조벌 및 연꽃테마파크를 방문하는 내방객은 모두 참여 가능하다. 호조벌을 배경으로 가족사진(반려견 포함)을 찍어 인스타그램에 '호조벌 온라인 사진전'으로 해시태그를 달아 올리면 참여할 수 있다.

사진전은 5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매달 1회씩 총 6회 개최된다. 매월 첫째주 3일간 시흥시농업기술센터 인스타그램에서 투표를 진행해 가장 많은 표를 얻은 10명에게는 찍은 사진을 예쁜 액자로 만들어 제공한다.

이번 온라인 사진전을 계기로 아름다운 호조벌 경관을 많은 분들과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호조벌 온라인 사진전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페이스북 및 인스타그램에 '호조벌 온라인 사진전'이라 검색하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수/기자

금천문화재단,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이야기' 공연 개최

금천문화재단이 5월 26일 오후 7시 30분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에서 '루이스초이와 함께하는 스트라빈스키 병사의 이야기'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공연은 '금천초이스(Geum Cheon Choice)시리즈'의 네 번째 프로그램으로, 카운터 테너 '루이스 초이'의 재미있는 해설과 7중주 앙상블이 어우러진 명품 클래식 공연이다.

클래식과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스트라빈스키'의 음악극 '병사의 이야기'는 발레 음악과 오페라를 만들던 '스트라빈스키'의 창의성이 돋보이는 작품으로, 독창적 이면서 클래식의 선율과 문학적 요소를 더한 숨은 명작으로 손꼽힌다.

제 1차 세계대전 당시 피폐해진 현실을 배경으로 로마노프 왕조시대에 강제 징집된 병사가 휴가를 받아 고향으로 돌아오는 시점에서 병사가 악마와 맺는 거래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나라이션은 작품에 대한 몰입도를 높이며, 적재적소에 배치된 노래와 연주는 극을 더욱 생생하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특히, 이번 공연은 가성으로 소프라노의 음역을 구사하는 남성 성악가인 카운터 테너 '루이스 초이'

가 1인 다역을 소화하며 재미있는 해설과 노래로 극을 이끌어간다.

또한, 오케스트라를 대표하는 7가지 악기 연주와 실내악 편성이 극의 웅장함을 더해 마치 교향악곡을 듣는 듯한 느낌으로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할 예정이다.

이번 공연은 사전 전화예약을 통해 200석으로 한정 운영된다. 재단은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두기 좌석제, 발열체크, 마스크 착용 등을 통해 관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공연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금천초이스(Geum Cheon Choice)시리즈'는 금나래아트홀 공연장을 비롯한 금천구 다양한 공간에서 공연을 펼치며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선정된 전문예술단체 7팀이 한 번씩 공연을 선보이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코로나로 인해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가 줄어든 시민을 위로하기 위하여 전 공연은 무료로 진행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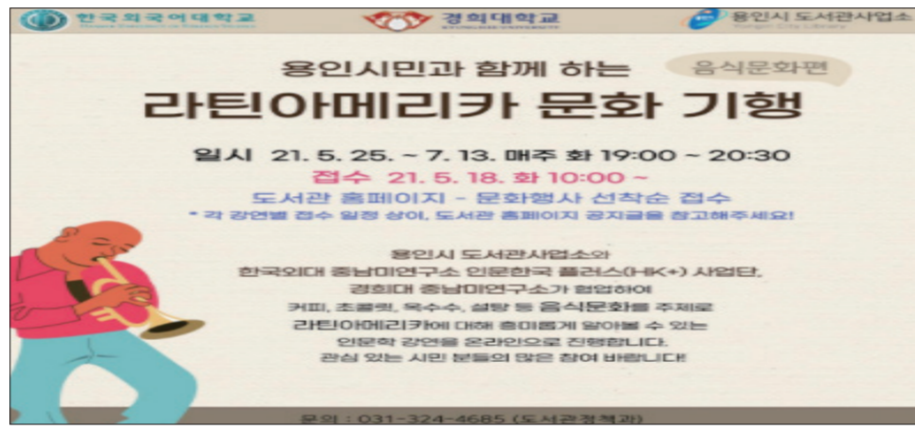
이용진 금천문화재단 대표이사는 "이번 공연이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금천구민들에게 작은 휴식과 위로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미성/기자



용인시, '용인시민과 함께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 진행

한국외대·경희대 협업으로 운영... 선착순 접수 마감



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 '2021년 텃빈날 프로젝트' 개최

상영일정을 비워두어 관객이 직접 선택하는 '인디영화 DIY'

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은 상영 종료된 영화 중 다시 관람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텃빈날 프로젝트'를 오는 6월부터 개최한다.

독립영화전용공간인 인디플러스 포항에서 지난 해 인기 상영작이었던 △B급 머트리, △칠곡 가시나무, △윤희에게 등 총 12편의 영화 중 보고 싶은 영화를 투표해 다수결 원칙을 따라 선정된다.

'텃빈날 프로젝트'는 종영된 인기 상영작 중 시민의 투표로 매일 비어있는 상영시간표를 지정하고 선정된 작품을 재상영하는 프로젝트이다. 투표는 18일부터 27일까지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포항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번 투표를 통해 선정된 영화는 6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주 금요일에 운영되며 오는 6월 18일 오후 7시 30분에 첫 상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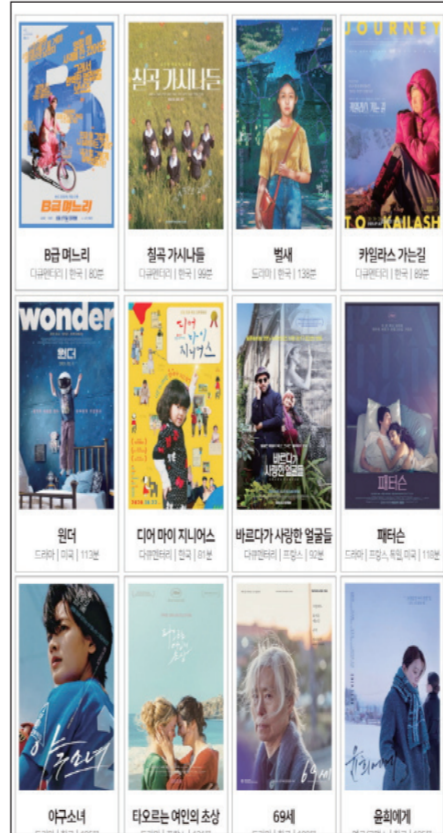
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 관계자는 "지난 상영작 중 쉽게 놓친 영화가 있다면 꼭 투표해 관람영화를 직접 지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며, "많은 시민들이 이번 기회를 통해 독립영화의 매력이 매료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포항문화재단 인디플러스 포항은 다양한 기획전과 이벤트를 운영하고 있다. 오는 29일 오후 4시 30분에 단 단한 영화展 '원헬스 단편전 : 함께 살아가기'가 개최된다. 또한, 자주 방문하는 관객을 위해 스탬프 카드를 제작해 10개의 스탬프를 모은 관객에게 초대권 1장을 무료로 증정

하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5월 상영 영화로 스미나리, 스러픈들은 몰라요, △비밀의정원, △스프링송, △레미제라블 등 총 5편의 영화를 상영한다.

한편, 독립영화전용공간 인디플러스 포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좌석 띄어앉기로 최대 130석 제한하며 상시 소독 및 방문자 전화등록 등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준수해 운영하고 있다.

김세기/기자



용인시 도서관이 오는 25일부터 7월 13일까지 한국외대 및 경희대와 협업해 '용인시민과 함께하는 라틴아메리카 문화 기행' 강연을 운영한다.

8주간 매주 화요일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연은 커피, 초콜릿, 옥수수, 설탕 등 음식문화를 주제로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흥미롭게 알아볼 수 있도록 꾸러졌다.

정승희 라틴아메리카 문화 전문가의 '라틴아메리카의 음식문화'를 시작으로 정옥 커피 전문가의 '커피의 역사, 커피의 나라 코스타리카' ▲김세훈 커피팩토리 대표의 '라틴아메리카 커피 전문가(바리스타)와 함께하는 커피 제조법 배우기' ▲황수현 경희대 스페인어학과 교수의 '달콤 쌉사름한 초콜릿'이 진행되는다.

또 임수진 대구가톨릭대 스페인 어중남미학과 교수의 '신화에서 문화로(라틴아메리카의 옥수수 문화)'와 우석군 서울대 교수의 '카리브의 눈물, 설탕, 설탕과 권력' ▲장재준 전 한국외대 특임교수의 '안데스 고산지대의 떡거리 감자와 코카' ▲임두빈 부산외대 교수의 '날 것과 익힌 것의 문화 코드로 읽는 브라질 음식문화'가 순차적으로 열린다.

참가자는 시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시 도서관 관계자는 "관내 대학인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 인문학국 플러스 사업단 및 경희대 중남미연구소와 협업해 특별한 온라인 강연을 기획했다"며 "라틴아메리카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수/기자

나주 혁신도시에 국가균형발전 상징조형물 들어섰다

나주시와 공공기관의 화합과 변화의 물결 상징

광주·전남(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도심 중앙에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정체성을 내포한 상징조형물이 새롭게 들어섰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20일 혁신도시 빛가람점판대 앞 잔디광장에서 '국가균형발전 상징조형물' 준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총 너비 6m, 높이 2m의 상징조형물은 영상강 물결을 형상화한 틀에 나주시와 16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로고를 각각 새겨 제작됐다.

조형물은 나주시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화합과 공존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물결이 국가균형발전의 아이콘이자 국가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바라는 시민들의 염원을 담았다.

이날 준공식에는 강인규 나주시장, 신정훈 국회의원, 김영덕 시의회의장을 비롯해 혁신도시이전공공기관 노동조합협의회, 이·통단장연합회, 주민자치위원회협의회, 주민자치회 대표·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조용했던 시골마을에 신도시가 들어서고 국가 에너지산업 선도하는 에너지수도로 발돋움하기까지 많은 일들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상생과 화합을 통해 도시 발전에 함께 해준 시민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상징조형물이 국가균형발전의 정체성을 되새기고 더 나은 정주여건 개선에 따른 명품 혁신도시 도약을 새롭게 다짐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빛가람 혁신도시는 참여정부 시절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



도 건설 등 강력한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조성된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유일한 공동 혁신도시로 나주시 금천·산포면 일대 총면적 7361천㎡에 조성됐다.

2005년 나주시로 최종 입지가 선정된 이후 인구 5만명 자족형 독립 신도시를 표방하며 2007년 11월 착공, 2014년 12월 준공됐다.

공공이전기관 이전은 2013년 3월 우정사업정보센터를 시작으로 2019년 1월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까지 에너지·농생명·정보통신·문화예술 등 각 분야 국가 중책을 담당하는 16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현재 빛가람동 인구는 4월 기준 3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김영안/기자

산지 정화활동 및 쓰레기 투기 불법행위 단속 강화

거제시, 도시미관저해불법 현수막 집중 단속한다 강력 단속 방침.. 최대 5백만 원 과태료 부과

적발 시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에 따라 엄중 처벌

산림청은 산림자원의 건강한 생육 환경 조성 및 산림의 탄소 흡수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하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보호가치가 매우 큰 산림정화구역과 100대 명산을 거점으로 중점 추진 중이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이 오염되었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어 오염의 방지·정화가 필요한 지역을 산림정화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 중이다.

현재 전국에 지정된 산림정화구역은 887개소, 238,465ha로, 오염방지를 위해 쓰레기장, 화장실 등 관련 시설 1,736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산림재해방지사업 및 산지정화

캠페인 등을 통해 연간 약 2,000회의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1,700여 톤의 쓰레기를 수거·처리 중이다.

'100대 명산 폐기물 처리사업'은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100대 명산을 중심으로 산림 내 폐기물을 수거하고, 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물을 철거하는 사업이다.

2019년 국민참여예산에 반영되어, 불법 투기된 폐기물이 산림 내 계속 방치되어 산림과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되었다.

사업 기간 총 3년(2019년~2021년), 사업비 약 46억 원으로, 올해는 충청·경상 권역에 17.7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연말까지 약 3,400톤의 폐기물을 수거·처리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중 불법행위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투입하여 사법처리를 추진하고, 원

인자 부담원칙을 철저히 적용할 방침이다.

아울러,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산림특별사법경찰, 청원산림보호직원, 산림드론감시단 등 약 2,000여 명의 사법인력을 투입하여 단속을 강화한다.

산림드론감시단이 드론을 띄워 넓은 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상습 투기 지역은 산림재해방지 자위대 등이 상시 계도·감시를 한다.

국유림, 사유림 등 산림 관할에 상관없이 강도 높은 책임단속을 하고, 불법 투기 적발 시에는 「산림보호법」,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선처 없이 엄중히 처벌할 방침이다.

한편, 최근 3년간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는 산림 내 오염원 제거사업을 통해 15,192톤의 산림 내 폐기물을 처리하였다.

산림청 김용관 산림보호국장은 "지속적인 계도·감시를 통해 산림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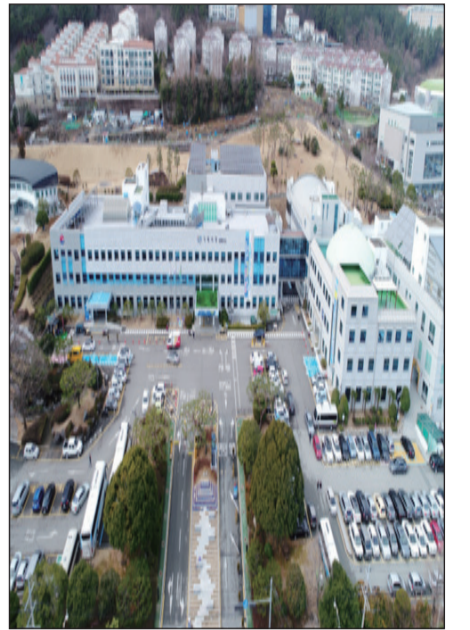
깨끗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산림정화 등 산림보호 활동에 국민들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최광수기자



시 관계자는 "모든 불법 현수막 집중적으로 단속하여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거리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영훈기자



대구시 수상 레저시설 특별 안전점검 실시로 '안전한 여름' 준비

성수기 특별 안전점검으로 수상 안전사고 예방과 코로나19 확산 방지

대구시는 5월 24일부터 5월 28일까지 유선장 및 수상레저시설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대구시는 시민들이 물을 가까이하는 여름철 성수기가 다가옴에 따라 유선장 및 수상 레저시설에 대해 관할 구·군과 합동 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위반사항은 현지 시정과 동시에 중대 위법사항은 관련법에 의거 조치 등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유선장 8개소(183척), 수상레저시설 3개소(108척)이며,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및 인명구조장비 확보 및 활용실태, 출입할 기록 등 안전운항에 필요한 사항과 출항 시 착용한 구명동의를 운항 중 벗어버리는 행위, 야간 운항에 필요한 조명시설 설치 여부 및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여부 등이다.

또한, 수상 안전사고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선내 숙지훈련, 퇴선훈련, 기름유출 대응훈련, 소화훈련, 인명구조 훈련, 침수 및 추진기관 사고 대응 훈련 등 전반적인 재난대책 계

획도 점검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5월 말까지 점검을 완료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시정이 가능한 것은 즉시 조치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 보수·보강 등 근본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이번 특별 안전점검 이외에도 성수기가 끝나는 10월까지 매월 점검할 예정이다.

남궁영기기자



김영애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성수기 유선장 및 수상레저시설의 철저한 안전점검을 통해 위험요인을 제거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도 수상안전과 관련한 위험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청주시, 보험업체發 코로나19 감염차단 총력

660여개 보험사·보험판매대리점 대상으로 PCR검사 및 집합제한 권고

청주시가 최근 보험사 및 보험판매대리점에서 촉발된 코로나19 집단감염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내 660여개 보험사와 보험판매대리점을 대상으로 집합제한권고를 발령하는 한편,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들에 대한 시정조치에 나선다.

시는 지난 16일 상당구 소재 보험업체에서 최초로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지역 내 보험사에 대한 전수점검을 추진하고 있었으나, 상당구 소재 보험판매대리점에서도 대량의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방역관리 대상 확대를 위해 유관기관의 협조를 구해 이들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외부 활동이 잦고 개인 간 영업이 활발한 보험업의 특성을 반영해 실효성이 떨어지는 행정명령이 아닌 권고를 발령하는 대신, 감염고리 사전 차단을 위해 현장점검과 병행해 이달 말까지 종사자 전원에게 PCR검사와 1/3이상의 재택 또는 교대근무를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보험업체 본사 차원에서 체계적인 지점·대리점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금융안전지원단, 보험협회 등과 공조해 코로나19 방역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최만식기자



경상남도, 2021 도정 중점과제 및 주요과제 추진상황 점검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관리를 통해 핵심사업 추진력 확보 및 도민체감도 제고

경상남도는 21일 하평빌 행정부지사 주재로 도정 3대 중점과제와 10대 주요과제에 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가속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21 도정 중점과제 및 주요과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김경수 지사는 올해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울경 메가시티 기반 구축', '뉴딜 선도 스마트인재 집중양성', '기후위기 대응 강화'의 3대 중점과제를 발표하고 도지사가 직접 중점과제를 관리함으로써 도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또한, 도정 정책방향에 따른 10대 주요과제는 권한과 책임을 부여한 실국장을 중심으로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 함으로써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지게 할 계획이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과제별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정책효과 분석 및 향후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하평빌 경남도 행정부지사는 보고회에서 "다음 달이면 김경수 지사 취임 3주년이므로 민선 7기 경남도정의

성공을 위해 남은 시간이 매우 중요하다. 오늘 점검하는 부분이 지난 3년간의 평가와 기초가 되는 만큼 정책들을 잘 마무리하고 완성도를 높일 수 있게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과제들을 세밀하게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남도는 앞으로 주기적인 추진상황 점검을 통해 2021 도정 중점·주요과제 추진에 속도를 붙이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광용기자

해남군,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실시

6월 7일까지 소나무류 무단 이동·소나무류 취급업체 특별단속

해남군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를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7일까지 11일간 봄철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소나무류는 소나무, 해송, 잣나무, 섬잣나무 등이다.

단속은 관내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조경업체, 화목사용농가 등 25개소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원목 및 조경수의 생산·유통 자료 비치여부, 소나무류 생산 확인표 발급여부 등을 조사한다.

특히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인 해남군 송지면 산정·소죽·마봉·서정·해원·가차·미야·우근리 일대의 재선충병 미감염 확인증 없이 무단으로 소나무류를 이동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소나무류 무단이동이 적발되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7일간 사전계도기간도 운영 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이번 특별점검은 전국적으로 확산추세에 있는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를 위한 것으로 방

제특별법 준수는 물론 고사목 발견 신고 등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소나무류 불법이동이나 적지 등이 발견되면 군 산림복지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해남군은 지난 2019년 송지면 산정리 소나무 2본에 소나무재

양영욱기자



창녕군 한정우 군수, 민간·법인 등 어린이집 방역실태 직접 챙겨

창녕군은 한정우 군수가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관내 민간·법인 등 어린이집 방역관리 실태 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 점검은 최근 어린이집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감염 취약계층인 아동들이 이용하는 보육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실태를 점검해 미흡한 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추진했다.

한정우 군수는 "어린이집이 코로나19로부터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갖추도록 아동 및 보육교직원에게 빈번히 접촉하는 교재교구, 보육실 손잡이 등을 매일 자체 소독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라며 수렴한 여러 의견과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적극 검토

하겠다"고 말했다.

첫날인 지난 20일 사회복지법인 성원어린이집 등 6개소를 시작으로 민간어린이집 10개소,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집 4개소, 법인·단체 어린이집 1개소, 직장 어린이집 1개소를 방문하게 된다.

한 군수는 이미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7일까지 국공립어린이집 등 6개소, 지역아동센터 6개소를 대상으로 방역실태 점검을 완료했다. 민간 보육시설의 방역관리가 자칫 느슨해지지 않도록 직접 챙기고,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민간시설의 운영관련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 현장점검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창녕군내 어린이집은 전체 22개소

로 최근 공동주택 의무어린이집 리모델링 국공립 전환 등 2개소를 포함한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어린이집 1개소, 민간어린이집 11개소, 직장어린이집 1개소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번 점검으로 군내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 점검이 모두 완료된다.

또한 군은 어린이집에 대한 코로나19 예방 선제적 대응을 위해 매일 셋째주 어린이집의 전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현장 점검은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함에 따라 소수의 인원만 참여해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했다.

남궁영기기자

이준익 감독 "자산어보" 오늘(20일) 티빙(TVING)에서 만나다.

21(금) 오후 7시 이준익 감독, 변요한 배우 출연

2021년 제 57회 백상예술대상 영화 부문 대상을 수상한 이준익 감독의 영화 '자산어보'가 20일부터 티빙에서 공개되며, 21일 저녁 7시 티빙과 티빙 유튜브에서 온라인 GV를 생중계한다.

티빙만의 색다른 토크 브랜드 T.M.T(TVING Moving Talking)에는 이준익 감독과 변요한 배우가 출연하여 (자산어보) 영화에 얽힌 이야기를 선사할 예정이다.

더불어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명작들과 백상예술대상 수상 작품들로 수놓아진 티빙 큐레이션을 공개해 영화 팬들의 관심을 집중시킨다.

지난 5월 13일 개최된 2021년 제 57회 백상예술대상의 영화 부문 대상 영예의 주인공은 '자산어보'를 연출한 감독의 명작 이준익 감독이었다.

이처럼 뛰어난 연출력과 남다른 작품성을 입증한 '자산어보'를 오늘 20일(목)부터 티빙(TVING)에서 만날 수 있다. 특히 본편과 더불어 '자산어보' 한글 자막판까지 동시 공개하여 영화를 더욱 깊이 있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티빙은 영화를 더욱 다채롭게 즐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5월 21일 오후 7시에 이준익 감독과 배우 변요한이 함께 하는 T.M.T(TVING Moving Talking) 온라인 GV를 개최할 것을 예고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T.M.T는 티빙만의 시그니처 온라인 GV로 이번 '자산어보'의 T.M.T는 티빙과 티빙 유튜브, 뭉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 된다. 이준익 감독과 배우 변요한이 참석해 '자산어보'에 대한 흥미로운 비하인드는 물론

심도 깊은 이야기를 풀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 사전 취합한 관객들의 질문과 '티빙 유튜브' 실시간 채팅창을 통해 들어온 관객들의 질문에 답하는 시간은 물론, 영화를 사랑하는 팬들을 위한 깜짝 코너까지 예고하며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것이다.

영화 '자산어보'는 흑산으로 유배된 후, 책보다 바다가 궁금해진 학자 '정약전'과 바다를 벗어나 출세길에 오르려고 싶은 청년 어부 '창대'가 [자산어보]를 집필하며 벗이 되어가는 이야기.

영화는 '정약전'과 '창대' 두 인물의 신념과 고민이 자아내는 공감과 영화의 감동적 메시지, 배우들의 명연기가 높은 평가를 받으며 언론과 관객들의 뜨거운 호평과 함께 이준익 감독에게 백상예술대상 대상을 안겨주었다.

이와 함께 티빙은 이준익 감독이 연출한 명작을 특별 큐레이션으로 제공한다. 천만 영화 '왕의 남자' 및 '황산벌', '평양성', '라디오스타', '남은 먼곳에' 및 최신작 '소원', '사도', '동주', '박열', '변산' 등을 모두 티빙에서 만날 수 있어 티빙으로 무방하게 만드는 볼거리를 더욱 풍성하게 완성했다.

티빙은 이외에도 백상예술대상 영화 수상작 라인업 큐레이션도 더하며 영화 팬들을 설레게 하고 있다. 영화 부문 작품상인 '삼진그룹 영어토익반'을 비롯해 '소리도 없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남매의 여름밤', '세자매' 등 백상예술대상 영광의 작품들도 티빙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순희기자



'전참시' 음문석, 웃음만발 캠핑 데이! 서인국X이수혁 초특급 게스트 총출동!

'전지적 참견 시점' 음문석이 빵 터지는 캠핑 데이를 즐긴다.

5월 22일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기획 박정규 / 연출 노시용, 채현석 / 이하 '전참시') 154회에서는 초특급 게스트 서인국, 이수혁 등이 함께 한 음문석의 웃음 만발 캠핑 데이가 그려진다.

이날 음문석은 서인국, 이수혁, 배다빈을 캠핑카로 초대한다. 이어 음문석은 '음세프'로 야심차게 변신, 치즈 닭발과 수육 요리에 나선다.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음식에 캠핑의 분위기는 한껏 물이 오른다. 게스트들은 음문석 표 캠핑 요리를 맛본 뒤 "진짜 맛있다"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다.

화기에 애하던 분위기도 잠시. 이내 음문석은 궁지에 몰려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는가 하면, 느닷없이 욱하는 모습으로 캠핑장을 웃음바다로 만들었다고. 이에 게스트들은 음문석에게 "형~솔직히 귀찮지?"라고 돌직구 질문을 던져 웃음을 자아낸다. 과연 음문석의 캠핑장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그런가 하면 이날 음문석과 이수혁은 마치 톱과 제리를 보는 듯한 케미스트리를 보여준다. 특히 이수혁은 "오늘 스케줄 문자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문자는 처음"이라고 전하며 캠핑의 정체(?)에 궁금증을 더한다.

과연 음문석의 캠핑 데이는 무사히 끝날 수 있을지. 초특급 게스트들과 함께 한 웃음과 흥 넘치는 캠핑의 정체는 5월 22일 토요일 밤 11시 10분 방송되는 MBC '전지적 참견 시점' 154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재은/기자



영화 "스테이" 오지호 X 오초희 X 이재용 캐스팅 확정! 6월 15일 전격 크랭크인!

한 판 '제대로' 뒤집을 이들의 승부가 펼쳐진다!

목숨을 건 타짜들의 긴장감 넘치는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 '스테이'가 오지호, 오초희, 이재용 등 대체불가 배우들의 캐스팅을 확정 짓고, 오는 6월 15일 전격 크랭크인 한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넘나드는 타짜들의 목숨을 건 한판 승부를 그린 영화 '스테이'가 오지호, 오초희, 이재용 등 캐스팅을 확정짓고, 오는 6월 15일 전격 크랭크인 한다.

영화 '스테이'는 온라인 도박판에서 일명 '타짜'로 불리던 '택동'이 친구의 복수를 위해 현실 도박판에 뛰어들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범죄 액션 영화.

최근 영화 '태백권', '프리즈너'로 스크린은 물론 MBC [두 번은 없다], KBS2 [왜그래 풍상씨] 등에 출연하며 액션이건 액션, 코미디이건 코미디 장르 불문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오지호가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고 도박판에 뛰어든 '택동' 역을 맡았다.

특히, 방구석 '타짜'에서 벗어나 현실 '타짜'로 거듭나기까지 모습을 긴장감 넘치게 그려낼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은다. 매 작품마다 새로운 도전을 하는 '열정형 배우'로 불리우는 오지호는 이번 작품에서 다시한번 과격적인 변신을 예고 하고 있어 더욱 기대를 높인다.

또한, 2009년 가수 '왁스' 뮤직비디오로 데뷔해 영화 '나의 사랑 나의 신부', OCN [손 the guest], OCN [블랙], OCN [보이스], SBS [냄새를 보는 소녀] 등에 출연하며 다양한 캐릭터로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오초희는 섹시함을 지닌 도박판의 하우스장 '나리' 역으로 분했다.

특히 SBS [불새 2020]에서는 눈길을 사로잡는 악역 캐릭터를 완벽히 소화하며 탄탄한 연기력을 입증 받은 오초희는 이번 영화 '스테이' 통해 다시 한번 마성의 매력을 펼칠 것으로 더욱 기대를 모은다.

아울러, 승부 앞에 자비란 없는 프



로 타짜 '동수' 역에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채로운 연기로 작품마다 시청자들의 뇌리에 강렬한 인상을 남긴 배우 이재용이 맡아 극에 긴장감을 불어넣을 예정이다.

또한, 아들 '택동'의 뒤에서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는 '택동 엄마' 역에 이용녀까지 캐스팅 되는 신스틸러

현유주기자

'알고있지만' 아찔하게 설레는 타투 포스터 공개! 몸에 새겨진 나비의 의미는?

'알고있지만' 한소희, 송강의 하이퍼리얼 로맨스가 시청자들의 설렘과 공감을 책임진다.

오는 6월 19일 방송 예정인 JTBC 새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연출 김기람, 극본 정원, 제작 비욘드제이·스튜디오N·JTBC스튜디오/원작 네이버웹툰 <알고있지만>(작가 정서)) 측은 20일, 오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는 한소희와 송강의 나비 타투 포스터를 공개했다.

'알고있지만,'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한소희 분)와 연애는 성가셔도 썬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송강 분)의 하이퍼리얼 로맨스를 그린다. 지나치게 달콤하고 아찔하게 섹시한, 나쁜 줄 알면서도 빠지고 싶은 스물두 살 청춘들의 발칙한 현실 연애가 시청자들의 설렘을 깨운다. 동명의 인기 네이버웹툰을 원작으로 캐스팅부터 화제를 모았던 '알고있지만,'은 대체 청춘 배우 한소희, 송강의 만남으로 역대급 비주얼 커플의 탄생을 예고했다.

연애는 성가셔도 썬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으로 완벽 빙의한 송강의 모습도 설렘을 유발한다. 누군가를 돌아보는 짙은 눈빛엔 연뜻 낮은 호기심이 스친다. 그의 목 뒤에 새겨진 나비 타투 역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선을 강탈한다. 금방

배일을 벗을수록 시청자들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공개된 타투 포스터는 한층 진해진 분위기로 기대감을 증폭시킨다. 먼저 사랑은 못 믿어도 연애는 하고 싶은 여자 '유나비'로 분한 한소희의 수줍음이 묻어나는 열은 미소가 시선을 사로잡는다. 머리를 묶어 올리는 찰나의 순간, 손목에 새겨진 자그마한 나비 타투가 눈길을 끈다. 여기에 더해진 '너만 볼 수 있는 나비'라는 문구는 유나비가 바라보는 단 한 사람이자, 유나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존재인 '나'와의 연애를 궁극에 한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관계에 제 발로 들어선 나비의 일탈(?) 로맨스가 공감을 자아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애는 성가셔도 썬은 타고 싶은 남자, '박재언'으로 완벽 빙의한 송강의 모습도 설렘을 유발한다. 누군가를 돌아보는 짙은 눈빛엔 연뜻 낮은 호기심이 스친다. 그의 목 뒤에 새겨진 나비 타투 역시 묘한 분위기를 자아내며 시선을 강탈한다. 금방

이라도 날아갈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의 몸에 감춰있는 나비의 존재는 신비감을 더한다. 타인에게 무관심한 비연애주의자 박재언은 유나비를 통해 낯선 감정과 마주한다. '너만 볼 수 있는 나비'라는 문구는 그의 감정을 고스란히 내비치며 설렘을 유발한다. 만인의 연인이지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뜻이었던 그가 갑작스럽게 날아든 유나비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을 것인지 벌써부터 기대된다.

'알고있지만,' 제작진은 "감정에 서투른 스물두 살의 청춘 유나비와 박재언의 뜨겁고도 차가운 리얼 연애담을 가감 없이 보여줄 송강, 한소희의 시너지를 기대하셔도 좋다"라며 "두 청춘 배우가 완성할 달콤하지만 시린 연애의 모든 것이 설렘과 공감을 안길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JTBC 새 토요스페셜 '알고있지만,'은 10부작으로 주 1회 편성을 확정지었다. 오는 6월 19일(토) 밤 11시 첫 방송 된다.

전순희기자



모두를 위한 안전벨트, 양쪽 귀에 걸어주세요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우리의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함께 마스크 착용에 동참해 주세요.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